

NYPI YOUTH REPORT

vol.3 2009. 08

발행일 | 2009.08.01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2188-8860 팩스 | 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

홈페이지 | www.nypi.re.kr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04 |  **미래세대 리포트** 국제이해교육의 틀 속에서 본 글로벌 역량강화와 미지_ **홍광현**(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10 |  **조사통계 리포트** 글로벌 일자리 및 글로벌 역량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_ **윤철경**

18 |  **정책제언 리포트** 청소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_ **김기현**

23 |  **해외동향 리포트** 23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
_ **Jaana Lahteenma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33 캐나다의 청소년고용_ **Elizabeth Saewyc** (University of Tampere)

42 |  **청소년 리포터** 42 Dynamic Korea 내가 사랑하는 B-Boy _ **김태영**(청심국제고)
48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서울대학교_ **차육현**(불곡고)
52 청소년에게 미치는 기부문화_ **김태영**(청심국제고)

61 |  **칼럼** 청소년 국제활동 및 글로벌인재개발방안_ **김소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62 |  **NYPI NEWS**

국제이해교육의 틀 속에서 본 글로벌 역량강화와 미지¹⁾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사업부장 | 홍광현

우리나라에서 전 지구적(Globalization)이란 용어가 **글로벌 사회**, **지구촌** 등으로 한국사회에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제적 인지도 및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참여를 시작한 시점이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일 정도로 생필품의 상표에까지 사용되는 흔한 용어가 되었다.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사업에 글로벌 역량강화란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다.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글로벌 역량 증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고등교육사업, 지속가능발전 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사업,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EFA: Education For All), 청소년 포럼, 다문화 포럼 등의 사업 안에는 글로벌 역량강화의 목적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특히히 아세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과 목적은 어느 면으로 보아 **글로벌 역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국제이해교육의 영역

은 5가지로 **다문화 이해(Cultural Diversity)**, **평화로운 세계교육(Peace and Equit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인권존중(Human Rights)**, **세계화문제(Globalization)**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글로벌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제이해교육의 목적은 나라와 민족,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속의 인류가 평화롭게 함께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및 윤리적 태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으로서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함께 학습하는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²⁾

청소년 글로벌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담론과 접근이 있지만 아직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해와 교육방법론이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만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교육의 결과물과 학회의 연구 자료들은 글로벌 역량의 이론적인 면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의 증진과 강화란 측면에서 미지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동일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2회 글로벌역량개발전문가연구포럼(2009년 4월 16일 개최)에서 발표된 것이다.

2) 이삼열, 강순원, 한경우 외 (2003).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p.7.

Cultural Diversity Peace and Equity Sustainability Human Rights Globalization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첫째로 글로벌역량의 요소로의 다문화 이해능력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교육과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 사업측면에서 살펴보자.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James A. Banks가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³⁾ 다문화 이해 능력은 문화정체성확립을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① 자기이해-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

② 문화적·민족적 대안·민족·문화·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

③ 기능·태도 습득-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 습득(문화적 접근)

④ 차별감소-소수민족집단이 자신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차별감소

⑤ 전 지구적(Global)사회구성원-삶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읽기, 쓰기, 수리 능력제고(기술적 접근)

⑥ 시민 공동체(글로벌 공동체)구성을 위한 협력기능-글로벌 공동체에서 제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습득하는 데 도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 잘 알고 있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와 같은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미래사회는 문화 사업이 승패를 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과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글로벌 역량에 핵심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도시와 국가들도 미래 경제에 있어서 미래 사회는 문화를 어떻게 통합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Banks의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공동체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간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글로벌 역량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실례로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사대주의 때문에 구미·유럽 권에 대한 문화,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동남아시아의 문화,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인지, 다문화 교육

3) James A. Banks 지음. 모경환, 최충욱, 김명정, 임정수 공역 (2008). <다문화교육 입문>(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pp.2-8.

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수직개념이 있는 것 같다. 마치 상류문화인 우리문화가 하류 문화인 소수문화를 동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흡수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관관 문화적 관점은 국제사회에 흐름과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지센터의 다문화이해증진 사업 중 세계문화유산통합이해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상이 일반인과 청소년층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주류 문화자가 비주류 문화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 소속자들에게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수평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앞서 Banks가 언급한대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시민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력기능을 증진시키고 문화의 통합능력과 창의적 적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밖에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으로 한 달 동안 한 나라를 집중 조명하여 미지센터가 한 나라의 문화원 역할을 함으로써 각 나라의 문화, 언어, 음식, 전통 예술 등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대사관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2. 평화와 평등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청소년 글로벌 역량 측면에서 두 번째로 다루는 것이 평화와 평등에 대한 부분이다. 평화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 분쟁 등의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반전, 분쟁해결 등은 교육의 결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평화와 평등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삶, 역사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소유하게 된다. 문화상대주의적 가치관은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화와 평등이란 측면에서 미지는 국제활동설명회, 국제화상회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NGO의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국제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공존과 평화, 인권, 양성평등, 난민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활동설명회

를 2004년부터 계속 진행 하고 있다.

IT기술을 접목한 국제화상회의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국제적 감각과 국제이슈를 청소년들이 화상을 통해 토론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문화이해부터 ‘북한의 핵 문제’ 까지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들이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방안과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아 프로젝트’는 화상이라는 IT 기반의 기술과 사이버공간, 언어 자동 번역시스템을 이용한 초등학생 국제교류 사업으로 일본의 NPO 관계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911테러 당시 사고 비행기를 우연히 타지 않아 생명을 건진 두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슬람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이 가진 문화적 적대심은 어릴 적부터 문화적 이해와 교류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상공간과 화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름과 같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감**을 자연스런 놀이와 만남을 통해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3.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2006년도 12월 **지속가능(Sustainable)**이란 단어가 미국의 언어분야 비영리단체 글로벌 랭귀지 모니터(GLM)에 의해 올해의 영어 단어로 선정됐다. 이제 글로벌 역량을 논하는 자리에 가면 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금의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그 성격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특별히 환경과 관련하여 개념이 더욱 명료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대 간 형평성, 양성평등, 사회적 관용, 문화 다양성, 빈곤 퇴치,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도시화,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 등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이념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의 구조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57차 유엔총회(2002년 12)에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권고에 기초해 유엔은 2005 - 2014년을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하였고, 유네스코를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지센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서울시 자매도시 청소년들과 서울시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브로시스 프로젝트(자매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9개의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모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고 적용시키는 스터디 캠프이다. 해마다 그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고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태국에서 벤치마킹한 방콕자매도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3월에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4. 인권존중에 관한 프로그램

UN 인권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기타 구분에 따른 사람들 간의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 우호,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형성에 기여하는 활동(UNDHRE: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4)으로 표방하고 있다.⁴⁾

인권존중의 정신은 다문화 이해, 평화와 평등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국제사회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미지센터의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는 지구촌의 여러 이슈 중 난민과 인권, 그리고 나눔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의 팽창은 이면에 가난의 팽창

이기도 하다. 몇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제외 한 지구촌의 대부분에선 기아와 전쟁, 가난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국제사회 문제와 인권, 가난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좁은 세계관을 교정하고 다른 세계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2007년도부터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국제 아트마일뮤럴프로젝트에서 진행하여온 희망의 운동화 프로젝트로 운동화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보내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우간다와 방글라데시의 청소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운동화에 담겨 전달되었다.

5. 세계화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단일문화에서 다문화로의 변화, 세계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가 한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 2009년 4월 초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시작 된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계 20개국이 모여 방안과 협력을 이끄는 중차대한 정상회의이다. 20개국은 선진국 및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이 회의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위상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국제화의 문제는 이제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의견을 내는 국제회의의 파견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제와 더불어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촌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올해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모여 기후변화를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에 한국 청소년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기후회의

4) 다음사이트를 참고, http://www.unesco.or.kr/front/business/business_01_view.asp?articleid=277

(Youth Climate Conference Asia)' 는 유네스코쿠웨이 트위원회가 주최한 국제 청소년 회의로서,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기후변화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의 청소년 3명이 한국 대표로 파견되었고 직접 한국 대표가 아시아 청소년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파견 사업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초국가적인 문제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 고취

- 범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내 규모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탈피

-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 및 이해와 친선 도모

(2) 청소년의 국제 감각 고양 및 리더십 형성

-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관심사와 동향을 파악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양

-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 도모

미지센터는 국제적 감각과 소통능력과 이해능력을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국제회의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지난해에는 제 32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정기총회, 제 6차 홀로코스트와 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olocaust and Education), '제 16차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총회(ICOMOS International Youth Forum & General Assembly)', 제 38차세계민속축전기구 총회(CIOFF World Congress)에 청소년들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리더 양성 사업은 청소년들(중, 고재학생)이 20여 개의 개별 주제로 팀을 이뤄 국가를 탐방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주제에 따른 기관과 인물을 찾아 인터뷰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조사 연구하게 되는데 사전교육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기반 지식을 갖추고 국내 전문가의 교육과 안내를 받게 된다.

2007년에는 유럽의 농업정책, 남아공의 인종차별,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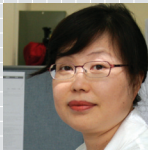
물관 교육정책등 주제로 14개 팀이 우수한 조사 탐방결과를 내놓았다, 2008년에는 소방 방재시스템과 도시디자인, 난민과 인권에 대한 조사 연구 등 19개 팀이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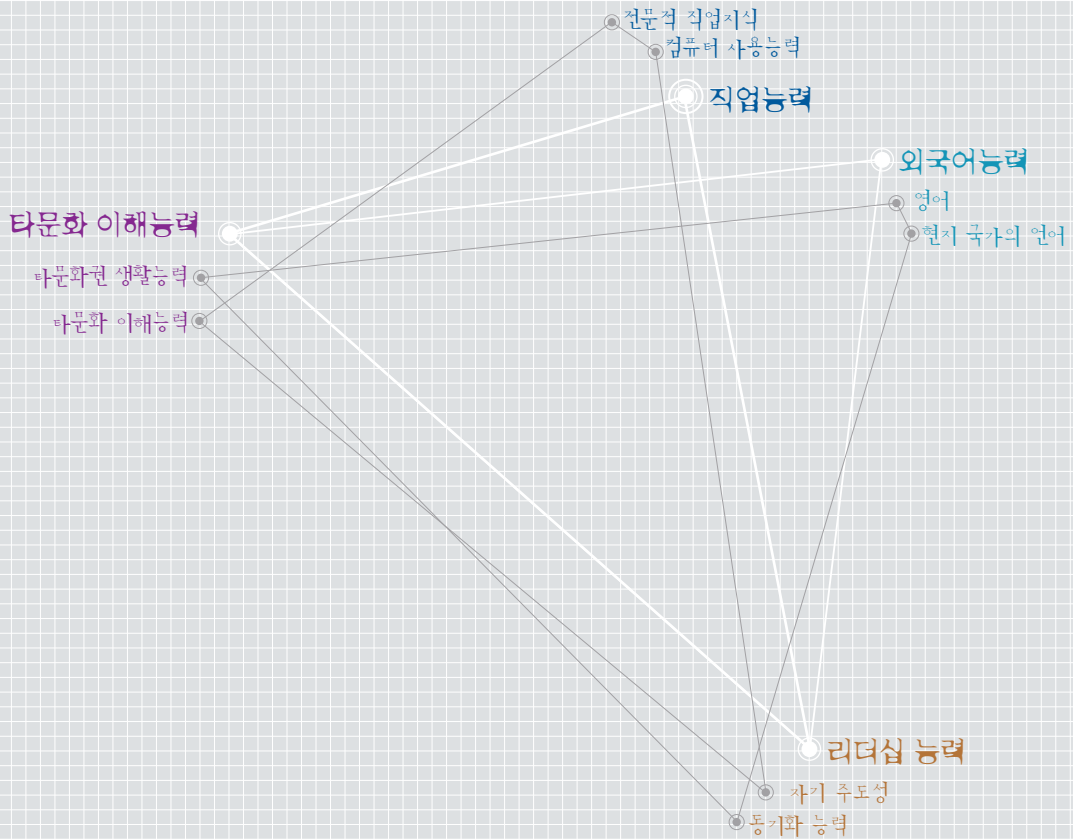
‘글로벌’이란 용어는 국경과 민족, 언어, 문화를 초월한 개념으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의미의 통합성과 창조를 의미하는 창의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역량’이란 민족과 언어,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과 더불어 비판하고 통합하는 능력일 것이다. 스펜서(Spencer&Spencer,1993)의 개인차원의 역량에 다섯 가지 요소인 동기, 특질, 자아개념, 지식, 기술 분야가 융합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오듯 글로벌 역량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다문화의 수용 능력 등이 결합하여 문화 창의적 자세를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다.

미지센터의 2009년도 슬로건은 ‘국제서민 양성의 인큐베이터’이다. 청소년들을 국제사회에 필요하고 기여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을 위에 언급한 것처럼 국제이해교육의 5가지 영역과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짧지 않은 시간 진행하여 온 과정과 이론적 기초와 학회의 연구 실적 등, 전체적인 국제이해교육의 목적과 그 결과를 보면 이러한 논의에 무게를 두어도 괜찮을 성싶다. 정리하면 국제이해교육의 5가지 틀인 다문화 이해(Cultural Diversity), 평화로운 세계교육(Peace and Equit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인권존중(Human Rights), 세계화문제(Globalization)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글로벌 역량이라고 보며 국제이해교육의 틀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자극과 교육, 체험 등이 글로벌 역량강화의 내용이 된다고 본다.🌐

글로벌 일자리 및 글로벌 역량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윤철경



1)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년 고유과제 '청소년의 글로벌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서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은 MB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청년층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 하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내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해외취업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2013년까지 5만명을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사업 외에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2013년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외교통상부 역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학 졸업자 중심의 2년 과정 장기봉사단 외에 재학생 위주인 1년과정, 6개월 및 4주 과정 등 중기와 단기 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LG, 현대 등 민간기업들도 대학생의 봉사활동 등 해외체험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교육에 대한 논의가 글로벌 에티켓이나 글로벌 시티즌십 등 교양교육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인적자원 개발로 전환된 것은 한 걸음 발전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청년층의 취업연수, 인턴,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청년층의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글로벌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그러한 일자리를 위해 어느 정도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의식 및 글로벌 역량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개요

전국의 고등학생(인문, 전문계고), 전문대학생, 일반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6개(서울시/경기도(인천포함)/충청도(대전포함)/전라도(광주포함)/강원도/경상도(부산, 대구, 울산포함)지역별로 2개 학교유형별로 층화 표집을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전문고로, 대학교의 경우, 2·3년제/4년제별로 학교를 선정한 후 PPS원칙에 의해 모집단 비율에 맞게 학교수를 무작위 표집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1개 학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학교의 경우 2개 계열별(인문사회교육계열, 공학자연의학예체능계열) 4개 학년별/성별로 할당추출을 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2,898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으며 남자 1,573명 (54.5%), 여자 1,314명(45.5%)이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청소년의 해외활동 경험 실태 및 참여의사, 해외 취업에 대한 의식,글로벌 역량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 실태, 정부정책 인지도 및 지원요구 등이다.

3. 조사결과

1) 해외취업의사

(1) 해외취업 희망률

청소년들에게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의 3/4에 달하는 2,160명이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해외 활동 참여 의사와 더불어 대다수가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배경변수에 따라 해외 취업 의사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해외 취업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71.6%가 해외 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79.1%가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보다는 고등

학생 가운데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에서의 전공과 관련하여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의료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해외 취업 의사가 약 85%에 달하고 있으며, 7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공학계열의 학생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간호인력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취업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평균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취업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해외 취업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 집단별 해외 취업 의사 차이

변 수		참여의사빈도	%	N	× 2
성 별	남	1,119	71,6	1,562	21,2***
	여	1,034	79,1	1,307	
학교급	고등학교	944	77,6	1,115	7,54*
	전문대학	347	72,1	435	
	4년제 대학	869	73,6	1,098	
고교계열	인문계	688	78,5	876	ns
	전문계	256	75,1	341	
대학소재지	서울 수도권	477	74,0	645	ns
	기타 지방	739	72,7	1,016	
대학전공	인문사회계열	584	71,6	816	8,4*
	자연공학계열	510	73,5	694	
	예체능계열	42	79,2	53	
	의료보건계열	78	84,8	92	
변 수	해외취업의사	평균	표준편차	N	t
평균성적	있다	3,38	0,98	1,665	4,37***
	없다	3,17	1,05	570	
가정경제수준	있다	2,96	0,80	1,666	ns
	없다	2,92	0,86	573	

*** p < .001; * p < .05; ns = not significant

청소년들의 해외취업의사는 청소년들 해외활동 경험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해외활동경험과 해외 취업의사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해외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73.7%가 해외 취업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해외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82.8%가 해외 취업 의사가 있다고 함으로써 약 9%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해외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해외 활동 경험과 해외 취업 의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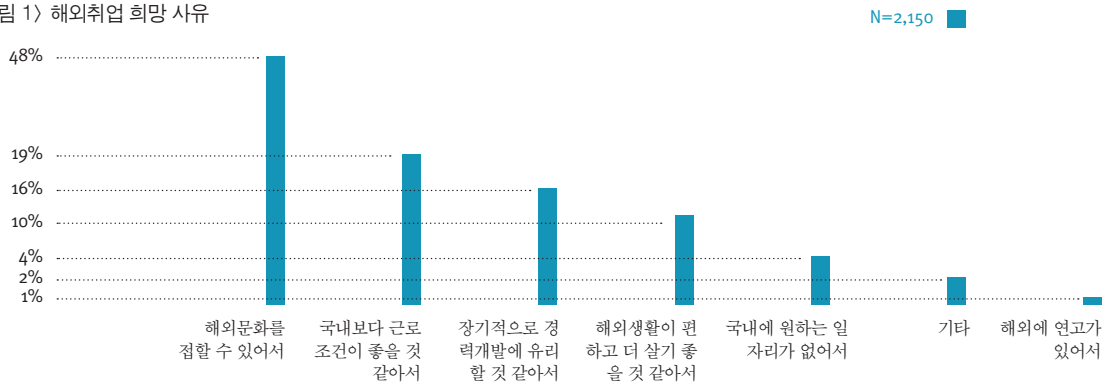
구 분		해외취업의사 없다	해외취업의사 있다	계
해외 활동 경험	전혀 없음	587	1645	2232
		26,3%	73,7%	100%
	경험 있음	82	395	477
		17,2%	82,8%	100%
	계	669	2040	2709
		24,7%	75,3%	100%

× 2 (df=1) = 17,53, p = .000

(2) 해외취업 희망 사유

해외 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이다. 해외 취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47.3%가 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취업보다 근로조건이 좋을 것 같아서’ 와 ‘장기적으로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 같아서’ 로 각각 19.2%와 16.1%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선택지와 다른 선택지들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해외문화에 대한 동경이 해외 취업 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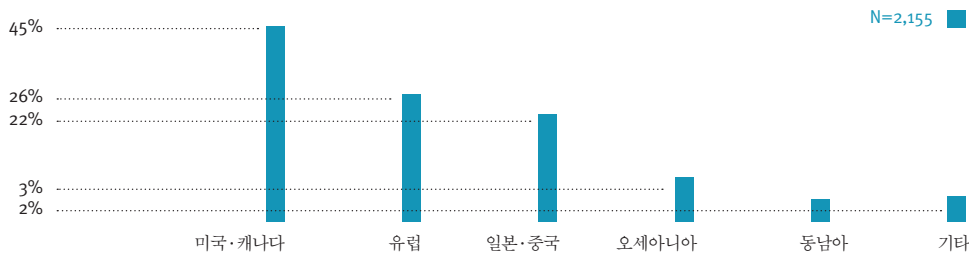
〈그림 1〉 해외취업 희망 사유



2) 해외취업 희망 국가(또는 지역)

해외 취업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취업지역은 북미지역이다. 약 절반에 달하는 984명의 학생들이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유럽, 일본/중국을 선호하였다. 특히 이 세 지역을 선호한 학생의 비율은 모두 92.9%에 달하고 있다. 이는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해외 활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구 및 일본/중국에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많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국가에 취업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해외 취업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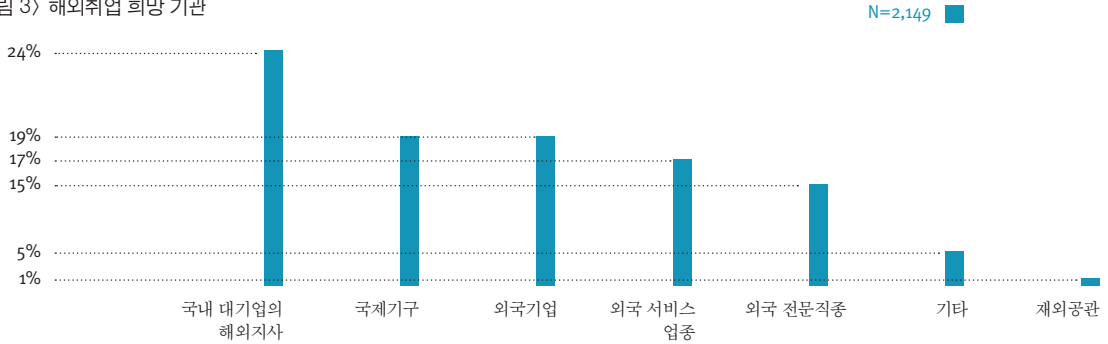
3) 해외취업 희망기관 및 분야

(1) 해외취업 희망 기관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23.6%는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지사를 통하여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 기업과 국제기구 근무가 해외취업의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약 62%가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지사, 외국기업, 국제기구 등을 통하

여 해외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통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국내 대기업에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 상황과 설령 대기업에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 지사에서의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취업 형태는 소수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막연한 희망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 해외취업 희망 기관



(2) 해외취업 희망 분야

〈표 3〉 해외 취업 희망 분야 (N=2,169)

분 야	빈 도	백분율%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794	36.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793	36.7
교육 및 연구 관련직	591	27.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460	21.3
정보통신(IT) 관련직	420	19.4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82	17.7
보건 의료 관련직	328	15.2
금융 보험 관련직	309	14.3
음식서비스 식품위생 관련직	272	12.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13	9.9
건설 및 재료 관련직	213	9.9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교육 및 연구 관련직’ 과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해외취업 희망 연봉

아울러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외 취업시 기대하는 평균 연봉이 약 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초임보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높은 수치로서 청소년들이 해외 취업에서 기대하는 소득이 국내에서의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

과가 외국의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기 보다는 단순한 희망 혹은 기대 사항 수준에서 설정된 액수일 가능성이 높고 기대 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경우 해외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직종별 소득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글로벌 역량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 실태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을 비롯하여 해외에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비록 취업에 성공한다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적절히 구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취업과 관련한 능력을 크게 외국어능력, 직업능력, 타문화 이해능력, 리더십 능력으로 구분하여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능력의 중요성과 구비 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글로벌 역량에 대한 이해도

〈표 4〉 해외취업에 필요한 능력

	외국어능력	직업능력	타문화 이해능력	리더십능력
1순위	1,768	523	246	218
2순위	532	1,139	650	414
3순위	226	694	937	868
4순위	207	377	900	1,231
N	2,733	2,733	2,733	2,731

청소년 응답자들에게 4가지 능력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한 결과, 외국어 능력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들은 1,768명으로 해당 문항 응답자의 65%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직업능력으로 1,139명의 청소년이 이를 2순위로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해외 취업에 필요한 능력으로 외국어능력과 직업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한 각 능력의 중요도

주요영역	외국어능력	평균	N
외국어능력	영어	3.66	2,871
	현지 국가의 언어	3.37	2,808
직업능력	전문적 직업지식	3.49	2,844
	컴퓨터 사용능력	3.29	2,840
타문화 이해능력	타문화 이해능력	3.32	2,842
	타문화권 생활능력	3.40	2,864
리더십 능력	자기 주도성	3.57	2,870
	동기화 능력	3.48	2,861

해외 취업에 필요한 4개 능력의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해외 취업에 필요한 것으로 영어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점

척도에서 영어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3.66점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리더십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설정한 자기주도성과 동기화 능력, 직업능력의 전문적 직업지식 등으로 나타났다.

(2) 글로벌 역량의 구비 정도 평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글로벌역량 글로벌 역량을 앞서 언급한 8개의 하위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5점 척도(1 =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에서 5 = ‘매우 잘 갖추고 있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8개의 하위 능력 가운데 해당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은 현지국가의 언어 및 영어의 외국어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외국어 능력이 해외 취업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의 향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평균값이 ‘그저 그렇다’ 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국어 능력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리더십 영역의 하위 능력인 자기주도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주도성 구비 정도의 평균값인 2.04는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은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성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구체적인 준거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직무 수행은 물론 학업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 해외 취업을 위한 능력 구비 정도

주요영역	외국어능력	평균	N
외국어능력	영어	3,30	2,871
	현지 국가의 언어	3,69	2,867
직업능력	전문적 직업지식	3,10	2,868
	컴퓨터 사용능력	2,76	2,868
타문화 이해능력	타문화 이해능력	2,72	2,868
	타문화권 생활능력	2,84	2,869
리더십 능력	자기 주도성	2,04	2,863
	동기화 능력	2,72	2,871

(3) 해외활동 경험과 글로벌 역량과의 관계

해외활동 경험은 해외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정도의 평가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영역의 8개 하위 능력 분야에 있어서 해외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각각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어 능력과 타 문화권에서의 생활능력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해외 활동 경험이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영어능력 구비 정도와 타문화권에서의 생활능력 구비정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 해외활동 경험과 해외 취업 능력 구비 정도와의 관계 *** p < .00

주요영역	하위능력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외국어능력	영어	없음	2227	2.58	1.05	-12.040***
		있음	475	3.22	1.08	
	현지 국가의 언어	없음	2223	2.20	1.15	-9.721***
		있음	476	2.78	1.27	
직업능력	전문적 직업지식	없음	2223	2.82	1.08	-8.501***
		있음	476	3.28	1.09	
	컴퓨터 사용능력	없음	2223	3.18	1.01	-6.237***
		있음	476	3.50	1.01	
타문화 이해능력	타문화 이해능력	없음	2225	3.18	1.07	-8.519***
		있음	474	3.64	1.05	
	타문화권 생활능력	없음	2224	3.03	1.15	-11.359***
		있음	476	3.68	1.04	
리더십 능력	자기 주도성	없음	2219	3.92	0.92	-4.773***
		있음	477	4.14	0.83	
	동기화 능력	없음	2164	3.46	1.04	-3.522***
		있음	461	3.65	1.05	

6) 정부정책 인지도 및 지원요구

(1) 정부 해외일자리 사업 인지도

최근 정부는 청년층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해외 인턴제, 해외 봉사활동, 해외 취업 연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의 3가지 사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물어보았다. 여기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인턴제 및 해외취업연수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는 각각 평균 1.85점으로 별로 잘 알지 못한다'의 수준 이하에 있으며,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2.06점으로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정부의 해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부 해외일자리 사업 유용성 평가

정부의 해외 일자리 사업이 해외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4점 척도(1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에서 4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로 응답하도록 한결과, 해외취업연수지원은 3.02점, 해외인턴제는 2.98점, 해외봉사활동은 2.85점으로 응답자들은 정부의 해외 일자리 사업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국가에 대한 지원요구

해외 취업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 및 경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외국어를 해외 취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해외 취업을 위한 연수 과정 제

공, 해외 인턴 기회 확대와 해외 취업 정보 제공의 순으로 국가의 지원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위한 능력이나 조건을 갖추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국가로부터 원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청소년층의 해외취업의사는 많다. 취업희망지역은 북미지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취업희망기관은 국내 대기업 해외지사, 외국기업, 국제기구에 60% 이상의 응답자가 몰려 있다. 매우 제한된 취업기회에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럴 경우, 청소년들의 해외취업은 막연한 희망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해외의 주요 구인수요를 살펴보면 IT인력, 간호사, 광업·건설 등 기술인력, 무역과 항공승무원 등 서비스인력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 이러한 인력은 한국의 전문계고, 전문대 졸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습득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에 필요한 외국어(영어, 현지어) 역량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계고등학생이나 대학생(전문대 포함)이 받는 학교교육 외 비정규교육은 자격증취득, 컴퓨터, 외국어 교육 등인데 이러한 교육이 학교수업 보다는 취업이나 업무수행에 더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청소년들은 해외취업을 위해 국가에 바라는 것은 외국어 학습기회와 경비의 지원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개인들에게 글로벌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청소년들의 국제적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럽청소년이 다국적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청소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어학연수와 해외직업훈련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범부처적으로 청소년고용정책에 개입하고 있으며 특별히 캐나다 국제협력단은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고용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국제협력단은 대학생 위주 해외봉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은 활발하게 해외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영어라는 자원과 결합되어 캐나다 청소년의 해외고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교외국어교육시스템의 개편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역별로 제공되는 전문어학당 교육 등을 통해 학교정규 외국어교육시스템을 개편하여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직업훈련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외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외국어교육, 이문화교육 및 해외인턴십 기회 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은 한국 사회의 변방이 아닌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현

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개인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건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고 만족스러운 개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바뀌게 된다. 유현숙 외(2002)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다른 역량을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사회에서 핵심요소였던 천연자원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으로 대체되었다. 교육과 정보 유통의 발달에 따라 지식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식이 풍부한 사회에서 지식을 잘 가공하고 결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기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윤현진 외(2007)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미래 한국인들이 갖추어야

핵심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원주의 사회의 등장은 다양한 삶과 가치·문화·사고 방식의 공존을 요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 능력, 갈등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구(0~24세)의 구성비는 2005년 33.6%에서 2030년 20.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1명당 부양인구는 2005년 8.2명에서 2030년 2.7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세대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

핵심역량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 OECD에서 추진해온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이다(OECD, 2005). 이 연구는 생애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했으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역량 요인들을 제안한 바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이란 생활 모든 측면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ychen & Salganik, 2003). 역량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욕구 충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케 하며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 권리, 환경보존을 가능케 하는 생활의 모든 차원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DeSeCo 프로젝트는 12개 국가의 사회학자, 측정전문가,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역사가, 통계학자, 교육학자, 정책입안자, 기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생애핵심역량을 범주화하였다(OECD, 2005).

첫째, 개인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개인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유도하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상징, 문자,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공감하며 연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은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보다 큰 맥락에서 행동하며, 생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학력과 직업자격체계를 통합한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일정수준의 국가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학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전환 중에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OECD의 역량 개념에 기초해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8대 생애핵심역량을 선포한 바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표 1〉 역량 기반 학습체계 논의 현황

범 교과 접근	교과 중심 접근	종합적 접근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주) · 영국 · 뉴질랜드 · 호주(빅토리아주) · 캐나다(퀘벡주)	· 일본1)	· 포르투갈 · 벨기에 (프랑스어권)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넣을지 논의 중인 국가(주)	· 영국(북아일랜드) · 벨기에(네덜란드어권) (독일어권)	· 덴마크 · 오스트리아 · 룩셈부르크

주: 범 교과 접근(general key competencies)

- 특정 교과를 넘어 포괄적으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경우

교과 중심 접근(subject-specific key competencies)

- 개별 과목들 내에서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종합적 접근 -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진하는 경우

1) 일본은 역량을 생활력(生きる力)으로 개념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출처 : Eurydice European Unit(2002), Ministry of Education, New Zealand(2007), Ministère de l'Éducation(2001), VCAA(2004), 文部科学省(2008)

특히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은 DeSeCo 프로젝트의 역량에 관한 관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기현 외, 2008). 뉴질랜드의 교육부는 200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뉴질랜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능력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심적이고 분과적인 기존의 교육과정 틀(framework)로부터 벗어나 좀 더 학생 중심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의 핵심개념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뉴질랜드는 이 DeSeCo 프로젝트에서 규명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뉴질랜드 차원의 핵심역량을 고안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5개의 핵심역량이 선정되었으며, 이것이 2005년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5가지의 핵심역량은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를 사용하는 것(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관리(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 등이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08학년도부터 각 학교급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념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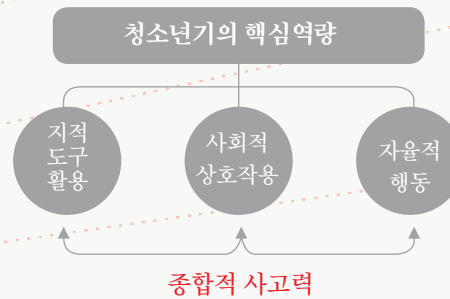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역량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취업자에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표준(standard)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 요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직업기초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인증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정철영 외, 1998; 이동임 외, 2000), 대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들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진미석 외, 2007). 노동부에서도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의 도입을 위해 직업능력을 크게 기초직업능력,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업공통직업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직업종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생애역량과 관련된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개념화와 표준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나승일 외, 2004).

이와 함께 생애나 생활 영역으로 확장하여 역량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들이 최근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2-2004년에 걸쳐 생애핵심역량을 ‘생애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인지적원에 요구되는 능력표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표준에 부응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국가차원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유현숙 외, 2002; 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4). 윤명희·김진화(2006)도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생애역량을 ‘생활역량’으로 개념화하고 청소년을 생활인으로 전제하고 그들의 잠재적 생활역량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6가지의 역량 요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보다는 성인이나 취업자 중심으로 역량 요인에 관한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역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시에 국내 논의가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역량 개념과 측정도구들이 제안되고 있어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3개 연구기관 협동연구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김기현 외, 2008).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

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중 생애발달단계에서 아동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은 정규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비정규교육체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영역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영역체계(안)는 기본적으로 DeSeCo의 영역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세 가지 역량 영역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종합적 사고력을 추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른 것이다. 첫째, DeSeCo의 세 가지 영역체계는 상호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기술로 불리는 역량 요인은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해석하고 의도하는 바를 비언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DeSeCo의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상호중첩된 영역이 생애핵심역량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를 종합적 사고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합적 사고력은 창조적,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결정, 추론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고 다른 역량 요인에 토대가 되는 영역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교육부가 DeSeCo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적 사고력(thinking)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에서도 종합적 사고력은 6가지의 역량 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 종합적

사고력의 하위요소로 ① 비판적 사고력, ② 문제인식 및 해결, ③ 논리적 사고력 등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진미석 외, 2007).

청소년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아동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학교 밖 활동영역을 역량 중심 학습체계(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측면에서 현행 '교과중심'의 국가교육과정은 교과목(편제)과 수업시수(시간 배당)를 구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고, 사회변화에 따른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을 학습영역 또는 역량 중심으로 슬림화하여 학교에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개편 논의는 청소년기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의 '갭 이어(Gap Year)' 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1년 동안 전환학년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향후 자신이 진로 판단과 실용적인 체험 학습을 위해 교과교육을 접고 직업체험, 여행, 봉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의 입학전형 관련업무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제도 도입 역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2007년 10개교 20억원, 2008년 40개교 157억원에서 2009년에는 236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밖 활동 영역 측면에서 활동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와의 연계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Duke of Edinburgh's Award)가 좋은 정책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 세계 12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국내에 도입, 2008년 임시회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08년에 고등학교, 청소년단체, 수련관

등 15개 기관이 시범운영에 참여하였고 2009년 3월 90명의 동장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활동 영역에서 역량 중심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기적으로 핵심역량을 측정하여, 학습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원·김지연·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숙·김현수·박종성·박윤희(1998). 기술분야 기초직업능력 인증제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나 외(2003).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나승일 외(2004). 기초직업능력 표준개발(2차년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윤명희·김진화(2006).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결과보고서.
- 유현숙·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Ⅲ).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진·김영준·이광우·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동임 외(2000). 직업능력인증제 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나승일·서우석·송병국·이종성(1998). 직업기초능력의 연역 분류 및 하위요소 추출. 17(2), 15-38
- 진미석·이수영·채창균·유한구·박천수·이성·최동선·옥준필(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5). Proposal for a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Key Competencies for Lifelong Learning.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Rychen, D & S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 해외동향 리포트 」

캐나다의 청소년고용 :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 전략

핀란드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





캐나다의 청소년고용 :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 전략¹⁾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Elizabeth Saewyc

적당한 소득은 아동기, 청소년 및 청년기 동안의 건강과 빈곤에 관계된 사회적 결정요인의 하나로써 조기 사망을 포함해 일생의 건강 불균형에 연결된다. 생활을 유지시키는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기도 하지만, 길거리 및 노숙 청소년에겐 적절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장벽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들의 노동경험을 다룬 연구는 얼마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실시한 길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재의 사회적 정책 및 취업 정책 현황을 설명하는데 있다. 14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에 실시된 길거리 청소년에 관한 세 건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취업 경험을 문서화하는데 있다.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평가뿐 아니라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상의 장애물을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청소년이 지속적 취업 상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공하는데 있다.

서부 캐나다 전역의 도시에 거주하는 길거리 청소년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부족한데다가 생활비 증가 및 최소임금의 정체에 직면한다. 이들이 직면한 장벽에는 안정적 주택의 부족, 직업훈련 및 노동경험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뿐 아니라 불충분한 교육, 십대부모이기도 한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충분한 보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도 포함된다. 이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거의 한 명 꼴로 지난 달 합법적 근로를 보고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시간 이상을 일했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경험의 기회가 있었던 청소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세 건의 모든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안전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임시보호소와 함께 취업지원은 모든 도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서비스 다섯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2001년 후반대의 청소년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 또한 구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85%).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는데 있어 일부 장벽을 해결하는데 일조하도록 제공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청소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1) 이 연구는 2009년 6월 25일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다.

서비스 종류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런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에 접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의 필요 수준은 이용 가능한 지원의 수준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 캐나다의 날로 악화되는 최근의 경제와 증가하는 실업률을 고려할 때 이런 큰 차이는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론

청소년에 있어 주요한 발달과정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현장으로의 이행 및 젊은이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의 성취다. 적당한 소득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고 (Marmot & Wilkinson, 1999), 아동기, 청소년기 및 청년기 동안의 빈곤은 조기 사망을 비롯해 일생동안의 건강 불균형과 관련된다. 사회적 다양성 및 시장의 영향력이 청소년의 취업기회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교육, 특정한 기술훈련, 부모의 지원 및 안정적인 주택 또한 취업의 획득 및 지속 능력에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Gaetz & O' Grady, 2002). 캐나다의 전반적인 인구집단에서 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시간제 취업을 시작해, 소매판매, 식품 서비스, 세탁 또는 기타 반숙련직에 관계된 일자리에서 최소임금으로 일한다. 2008년 캐나다 최서단 주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경우 12세에서 19세에 이르는 학생 가운데 41%가 지난 해 유급 시간제 근무를 했다고 보고했다(Smith, Stewart, Peled, Poon, Saewyc,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기술학원, 직업학교 또는 대학에서 후기 중등교육에 참여해 훈련이나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전일제 취업으로 이행하면서 취업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 안정적 주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길거리 청소년, 노숙 청소년 또는 가출 청소년은 생존을 위한 적절한 소득이나 임시보호소 없이 지내기도 한다. 위탁보호를 받거나 범죄활동으로 인해 수감되었던 청소년의 경우처럼 정

부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성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19세가 되면서 스스로 취업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지원을 청소년기 동안 아마 받지 못했다. 적절한 교육이나 시장성 있는 기술 없이 시설 출신이라는 낙인이 이미 찍힌 상황에서 그러한 청소년은 자신이 주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고 돈을 벌고자 지하경제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Gaetz & O' Grady, 2002). 이들은 마약거래, 절도 또는 성착취 같이 불법적 활동에 개입하기도 한다 (Saewyc, MacKay, Anderson & Drozda, 2008). 거리공연(모금을 받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함), 걸레질(모금을 목적으로 교차로에서 자동차 창을 청소하는 일), 또는 길거리 구걸 등 남는 잔돈 구걸(Gaetz & O' Grady, 2002; Smith, Saewyc, Albert, MacKay, Northcott,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Saewyc, Brunanski, Bingham, Hunt, Northcott, Smith,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등을 통해 생계를 꾸리기도 한다.

캐나다의 길거리 청소년 및 노숙 청소년의 수를 추정할 내용은 길거리 개입의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길거리 청소년은 1) 과거 일부 시점에 집을 떠났던 적이 있던 청소년(가출을 한 것이든, 내쫓긴 것이든 두 경우 모두이든), 2) 단기 보호시설이나 버려진 건물에 살면서 현재 집이 없거나 거주지가 불확실한 청소년, 3) 성노동, 구걸이나 마약거래를 일삼는 등 “길거리” 생활 방식에 관계된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길거리 청소년은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다. 또 길거리 개입 정도와 위탁보호 알선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약 40%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18세 이하)은 공공학교 (Smith et al., 2009)의 1%에 불과한 유사한 연령의 학생과는 대조적으로 정부 보호(Smith et al., 2007)를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일단 보호시설을 나간 청소년 가운데 약 15%는 노숙자가 되고 또 다른 30%-40%는 첫 2년 동안은 거주지가 불안정하게 된다(Kushel, Yen, Gee & Courtney, 2007; Rutman, Hubberstey,

Feduniw & Brown, 2006).

그러나 캐나다의 길거리 및 노숙 청소년 가운데 취업 경험, 취업 관련 요구사항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장벽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들은 노동시장과 주거상황 모두의 일시성 때문에 정부 노동 통계에서 정상적으로 추적될 수 없다. 토론토에서 실시한 360명의 노숙 청소년을 다룬 한 연구에서 이들의 다양한 소득원 및 공식, 비공식 유급노동 모두를 규명했다. 이들의 소득출처는 사회적 지위, 교육, 현재의 주거상황 및 신체적, 성적학대에 대한 노출이 서로 별개로 연계되었다.(Gaetz & O' Grady, 2002) 캐나다 전역에서 진행된 길거리 청소년에 대한 다른 조사들은 교육, 취업부분 보다 오히려 건강에 주요한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실시되었다.(Lloyd-Smith, Kerr, Zhang, Montaner, & Wood, 2007; Roy, Haley, Leclerc, et al., 2001; Shields et al., 2004).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선 2000년 이후 맥크레리 센터 소사이어티에서 이 주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길거리 청소년에 관한 각기 다른 세 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조사에는 생활 및 건강에 관계된 경험에 관한 질문 외에도 고용, 교육, 소득원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관계된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그런 만큼, 이들 연구는 서부 캐나다의 특정 주거상황 및 취업정책의 맥락에서 길거리 청소년의 경험을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첫째 2000년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노동 및 구직 시도의 배경이 된 사회 및 취업정책을 설명하고, 둘째, 같은 기간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여러 도시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및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경험을 제시하고 셋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인 환경요인 및 건강 장벽과 아울러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길거리 청소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보전에 일조하도록 개발되었던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담고 있다.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적 배경

2001년 자유당 정부는 BC 주의회를 장악하고 지난 8년 동안 집권 세력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길거리 청소년의 구직활동의 배경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경제적, 정책적 변화가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 변화 일부는 실제로 노숙 및 길거리 청소년의 수 증가, 저임금 가구의 소득 안정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의 증가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가구비율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Klein Griffin Cohen, Garner, Ivanova, Lee, Wallace, & Young, 2008; Snow, 2008). 예컨대 2008년 말까지, 이 기간은 2004년 이후 20억 달러를 초과하는 정부잉여금과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에 속했다. 동시에 BC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 정부 가운데에서 아동이 있는 빈곤층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BC 전역에서 5명의 아동과 청소년 중에서 1명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것을 최근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First Call).

취업 배경에는 또한 공통점 없는 개별의 상황 및 정책이 포함되었다. 예컨대 구직 (기회)가능성은 캐나다의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2001년에서 2008년까지 높았다. 그러마 BC의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바뀌지 않아 시간 당 8달러인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매 해 2%내지 3% 사이로 증가했다(Klein et al., 2008). 동시에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노동 허용을 위해 15세에서 12세까지 취업 연령을 낮추었고, 새로운 “훈련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고용주가 고용한지 처음 500시간이 되는 동안 시간 당 6달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훈련임금이 신규 십대 노동자 고용의 동기책으로 권고되고는 있지만 최근의 노동시장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훈련임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노동자는 25세 이상, 종종 신규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고용주는 500시간을 마쳤을 때 고용을 종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안정적 취업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며 이것은 다시 사람들의 취업 및 일자리 보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실시된 광역 밴쿠버 지역의 가장 최근의 홈리스 카운트에서 임시보호소에 거주하는 13%의 노숙자가 전일제 취업을 보고했지만, 여전히 주거상황은 여의치 않았다(Social Planning & Research Council of BC, 2008).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는 2000년 이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평균 임대료가 2001년과 2007년 사이 적어도 22% 증가했고(Snow, 2008; Klein et al., 2008), 임대 공실비율은 여전히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총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에 소비하는 인구의 수는 일종의 주택 보급현황에 관한 측정으로써 3가구 중 거의 1가구 꼴로 이 정도를 소비하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Snow). 실제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 중에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국제적 비교에서, 4개의 캐나다 도시가 주택의 구매여력이 심각한 시장에서 상위 25위에 올랐는데 이들 도시는 모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한다(Cox & Pavletich, 2009). 주택 구매여력이 심각하게 불가능한 시장 가운데에서도 밴쿠버 주택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시티에서의 주택, 영국의 런던이나 아일랜드의 더블린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 아울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주택보다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상황은 곧 길거리 청소년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발달상 이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배경이 된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년을 다룬 세 건의 조사는 본 논문의 분석 자료이다. 맥크레리 센터 조사 이어티가 2000년 처음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역의

6개 도시에서 12세에서 19세에 이르는 51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다(Murphy, Poon, & Weigel, 2001). 2001년에는 밴쿠버 시에서 180명의 길거리 청소년(19세에서 24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Laye & Murphy, 2002). 그 후 2006년 BC 전역의 지역사회 9곳에서 12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총 7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Smith et al., 2007). 이 세 건의 조사에서는 각각 참여적 접근을 사용해, 연구 파트너로서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 출신의 청소년 노동자 및 길거리 유경험 청소년 모두를 참여케 했다. 이 질문지는 지역사회 연구 파트너와 함께 개발 및 정비되었고, 취업, 교육, 꿈과 미래의 희망뿐 아니라 생활경험, 건강 및 위험 행동에 관한 140개에서 200개의 질문을 포함시켰다. 대부분의 질문은 각 조사에서 반복되었지만 청소년 및 지역사회 파트너가 확인한 새로운 문제 또한 추가되었다. 이 조사는 문맹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5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조사 팀 구성원이 크게 읽음으로써 진행되었다. 연구 질문지는 청소년에 의해 익명으로 작성되었다. 해당 조사 연구는 매년 주요 조사자들로 이뤄진 학술적 제휴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또는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의 윤리 검증을 받았다.

〈표IV-11〉 지난 주(2000, 2001) 또는 지난 30일 (2006)*간의 소득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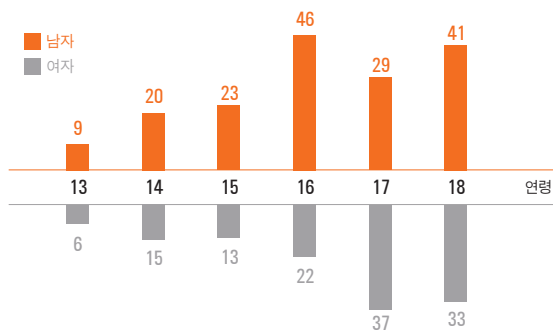
소득 종류	길거리 청소년 (2000) 12-19세 N=523	길거리 청소년 (2001) 19-24세 N=180	길거리 청소년 (2006) 12-18세 N=762
합법적 일자리	29%	33%	30%
사회적지원/아동복지	29%	62%	21%
부모	51%	21%	43%
구걸/거리공연	30%	32%	20%
돈 구걸을 위한 거리에서의 자동차 장문 걸레질	8%	12%	4%
음식, 설탕, 돈 의복을 위한 성매매	6%	18%	6%
마약거래	41%	40%	24%
절도	24%	23%	14%

*청소년은 한 가지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표IV-11〉은 2000년과 2006년 그리고 2001년 청소년 기 후반기의 청소년이 보고한 다양한 소득원을 나타낸

다. 각 조사에서 세 명의 청소년 가운데 거의 한 명이 사회적 지원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원 같은 기타 합법적 소득원뿐 아니라 지난 주나 지난 달에 합법적 고용에 의해 일을 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5명 가운데 한명과 나이 든 길거리 청소년 중 거의 절반이 구걸, 거리공연, 길레질, 또는 성매매를 일삼음으로써 길거리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청소년의 거의 절반 가량이 마약거래나 절도 같은 불법적 출처의 소득을 보고했다.

[그림 IV-9] 지난 달의 합법적 취업을 통한 임금수령(길거리청소년2006)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합법적 고용이 다른 조사에 나타난 길거리 청소년에 관한 종전의 보고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전반적으로 2001년 조사부터 청소년기 후반대의 길거리 청소년의 83%가 합법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고 55%는 일정 시점에서의 전일제 취업을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2000년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 중에는 40%가 지난 석 달간의 합법적인 시간제 또는 전일제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06년 지난 달에 합법적 일자리를 갖고 있었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중에서 52%가 주당 20시간 또는 그 이상, 또 다른 32%는 5시간에서 19시간을, 그리고 16%만이 주당 5시간 이하의 노동을 보고했다. 연령, 성별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심지어 길거리 청소년의 취업에 있어서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2006년에서 조사된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지난 달에 합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을 보고한 12세의 청소년은 한 명도 없으며 13세는 거의 없는 반면, 17

세와 18세의 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고용된 바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IV-9] 참조). 어떤 연령에서든 남성이 합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을 보고할 가능성이 다소 더 높았다(남성 35% 대 여성 25%, $p < .001$). 이성애자로 확인된 청소년(36%)은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27%),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없는 청소년(10%)보다 합법적 취업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최근의 주택현황은 합법적 일자리를 통한 소득에 크게 연관되지 않았다. 현재 집이 없거나 위탁보호에 있는 청소년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지난 달 부모와 함께 살았던 청소년만큼이나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취업 장벽

어린 노숙 및 길거리 청소년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알려진 장벽이 많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택의 불안정성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이 없는 청소년은 대다수의 취업 신청서를 위해 주소가 필요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며, 잠자고, 씻고,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없다면 적절한 휴식도,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외양 건사도 불가능할 수 있다(Gaetz & O'Grady, 2002). 2000년과 2006년 두 해의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71%가 지난 해에 불안정한 거주지에 살았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부모와 산 적도 있지만 보호소나 여관, 불법 가옥, 텐트와 자동차에서도 거주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했던 대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된다. 200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76%가 지난해 보호소, 쉼터, 길거리의 버려진 건물(“불법 가옥”), 또는 카우치 서핑 등 임시 또는 불안정한 거주지에서 기거했다.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중 일정 시점에 보호소에 기거하거나 거리에서 노숙을 했으며 66%는 밴쿠버에서 거주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6%는 그 이유가 자신에게 충분한 돈이 없어서, 22%는 집주인이 그들에게 집을 임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13%는 술과 마약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 외에도, 동시에 부모이기도 한 청소년은 종종 안전하고 믿을 만한 보육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보육시설 이용 비용이 자신의 임금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2001년 나이 든 길거리 청소년 중에서 26%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보고했다. 2000년엔 나이 어린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13%가 자녀가 있고, 2006년엔 16%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은 길거리 청소년의 적절한 취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잠재적 장벽이다. 읽는 것 같은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포함해 이렇다 할 기술이 없다면, 청소년의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임시 비숙련 노동에 한정될 수 있다. 길거리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일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001년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25%만이 당시 재학 중이었던 반면, 또 다른 29%는 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2000년과 2006년 나이 어린 청소년 가운데 2/3가 당시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을 했고(70% 및 66%), 이 가운데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45%는 일반 학교에 참여했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평가

가장 최근의 2006년 조사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자신의 지역사회에 있었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또 자신의 지역사회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요청 받았다. 2000년과 2001년의 초기 조사에선 지역사회가 필요로 했던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서 조사된 청소년기 후반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또한 구직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구직을 돕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의 종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의 경우 청소년의 취업은 특정 지원 서비스에 의 접근 여부에 관계되었다. 청소년 세 명 중 한명 정도만 직업훈련 서비스에 접근했다고 보고했고(33%), 32%는 노동체험 프로그램에 접근했다. 열 명의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이 그러한 서비스를 자신의 지역사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직업훈련이나 직업체험을 이용했을 때 이들 대다수는 그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말했으며 그들의 취업양상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해에 직업훈련을 이용했던 청소년의 경우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던 청소년과 비교해 고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았다(42% vs. 28% $p < .01$). 비슷하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고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39% vs. 28%, $p < .05$). 그러나 취업은 알코올 및 마약 상담, 마약치료, 청소년 의료기관, 임시보호소 또는 학교 프로그램 같은 기타 종류의 서비스 접근에는 관계되지 않았다.

이 모든 세 건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더 많은 직업훈련과 직업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안전하고 충분한 보호소와 함께 취업지원 또한 모든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권고되는 서비스 다섯 가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2001년의 청소년기 후반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청소년 또한 구직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85%). 구직 시 어떤 종류의 지원을 원하는지를 물었을 때 43%가 지속적인 교육을, 35%가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21%가 직업탐색 지원 및 이력서 작성을 답했다. 불안정한 주거 상황, 제한된 교육 및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부족 같은 취업의 잠재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2001년 청소년기 후반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31%가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했고, 2000년에는 초반기 청소년기의 길거리 청소년 가운데 36%가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기를 기대했다. 2006년에는 미미하게 낮은 비율의 청소년(26%)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으리라 예상했

데, 14%는 기술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통해, 또 12%는 대학 진학을 통해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5년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는 질문에 2006년엔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이 일 자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48%).

장벽 완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길거리 청소년의 적절한 취업에 놓인 만만치 않은 사회 경제적 배경, 청소년이 당면한 장벽과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를 고려할 때, 그런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할까? 주 정부 차원에서는 길거리 청소년을 위해 안정적인 보호소에서 그런 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 몇 가지 정책이 있다. 예컨대 정부보호를 받고 있는 16~18세의 청소년은 임시 주거지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임시보호소,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아울러 생활능력을 키우고 목표를 세우며 청소년을 학교에 재입학토록 지원하며,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형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한 임시 주거 프로그램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보통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제한된 수의 청소년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주 전역에 걸친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지난 몇 년 간 일부 임시 주거 프로그램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임시 주거의 대안책으로 위탁부모의 알선이 있지만, 청소년, 특히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청소년을 받아들일 만한 위탁부모의 수는 제한적이다. 2006년의 조사에서 조사된 절반 이상의 길거리 청소년이 캐나다 토착 원주민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들은 캐나다 원주민, 이누이트, 또는 메티스에 속하지만(Smith et al., 2007), 대부분의 원주민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원주민 길거리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을만한 원주민 가구가 태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Saewyc et al., 2009). 16세에서 18세의 일부 10

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사항은 재학 중이거나 일 자리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식 및 주거를 위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일종의 청소년 협약이다. 이런 접근은 이미 생활능력을 갖고 최소한의 감시로도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약물 사용문제가 있거나 성착취를 당할 수 있거나 또는 수년 간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온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성인의 지도와 정서적 지원이 없다면 독자적 생활은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정부 보호를 벗어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보호 하에 놓인 청소년은 특히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19세가 넘어가면 생활능력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연령에 따른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을 수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새로 마련한 시범 정책에서는 보호 속에 있는 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계속적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이행과정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업 장벽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기술연계 프로그램(Skills Link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성공적인 구직 및 유지를 위한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개별화된 접근법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자격이 되는 청소년은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면서 임금을 받고, 그 후 취업 후 처음 몇 달 동안 계속적인 멘토링 제공과 함께 보조금이 지원되는 취업알선을 제공 받게 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기술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재정을 지원 받은 바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은 길거리 청소년 및 위탁보호를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블레이드러너, 그리고 성착취를 당한 청소년의 성매매 탈출, 이들의 생활 안정, 기타 시장성

있는 능력 획득 및 구인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피크 프로그램이다. 블레이드러너 및 피크 프로그램이 두개의 프로그램은 기술 연계의 요건을 다소 차별적으로 달성하려 하며 이는 아래에 설명해있다.

블레이드러너(Blade Runner) 프로그램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은 길거리를 전전하거나 정부 보호를 거치거나 아니면 지원이 되는 취업과정에서 건설업 관련 직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운 15세에서 30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첫 과정은 다양한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간 당 최소임금을 받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경우의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수에 맞춰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료 증명서를 제공한다. 예컨대 청소년은 작업현장 안전, 응급치료, 식품안전관리 및 다양한 종류의 장비 조작에 필요한 훈련의 관계된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건물 시공에 대한 교육을 받고 건설직 취업을 시작하면서 멘토링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정서적 지원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기관과 제휴해 이러한 기회를 청소년에 제공하기 위해 건설노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은 나나이모의 청소년 서비스 협회 상무이사 스티븐 아넷에 따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전역의 7개 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도시들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을 14년 간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60% 이상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 시행 일 년 후 전일제로 고용되고 있으며, 절반은 여전히 2년 후에 고용되는 실정이라고 한다(Arnett,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3, 2009). 피크(Peak) 프로그램은 남녀 성노동자와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비슷한 수준의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영구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성매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성

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길거리 청소년의 경우보다 훨씬 심한 취업장벽에 부딪히는데, 그 방식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Gaetz & O' Grady, 2002; Saewyc, MacKay, Anderson and Drozda, 2008). 즉 이들 청소년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외상성 삶의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또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세운 약물남용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더 많다. 이들이 일하는 환경은 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아 폭력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지만(Saewyc et al., 2008), 또 그것이 청소년의 초보적인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어, 가장 불확실한 주거환경에 살면서도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 노동으로 인해 크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것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로부터의 차별뿐 아니라 수치심과 낮은 자긍심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청소년이 어떻게 취업에 관련된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막강한 취업 장벽을 고려할 때, 피크 프로그램에는 스킬스 링크 펀딩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길거리 청소년 중 이런 취약한 하위집단이 필요로 하는 바를 해결할만한 독특한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이 프로그램의 운영직원은 모두 (종전에 성적으로 착취를 당했고 그 자신이 성매매에 관계된) 경험 있는 사람들인데, 이는 참여자와의 신뢰구축과 유대관계형성에 중요했다. 그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연결시키고, 이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는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침과 점심식사가 제공되었고 운영직원 및 기타 피훈련자와의 연대 형성이 지원되었다. 6개월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끝나 갈 무렵, 프로그램 수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500달러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된다. 블레이드러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첫 석 달은 생활 기술, 직업적응, 훈련 및 수료, 직업탐색 코스 및 성공적 취업을 막을 수 있는 성노동

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상 문제 해결(알코올과 기타 약물치료를 받도록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후 석 달은 청소년의 흥미와 기술에 맞춰 개별화된 보조금 지급형 취업 알선과 함께 취업할 때까지의 지원을 위해 이 시기에 정기적인 멘토링 서비스도 이뤄진다. 임시로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이었지만,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단기적이어서 일부 청소년이 요구하는 보다 까다로운 사항은 해결할 수 없었고 이들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취업으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은 여러 해가 지난 후 재정 지원이 끊겨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결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길거리 청소년 및 주변화된 청소년은 이전의 강력한 경제성장 시기 동안에도 정제된 최저임금수준과 거주지역에서의 극히 어려운 주택 구매 여력이라는 사회 경제적 배경을 포함해, 성공적인 취업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장애물에 부딪힌다.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 취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고자 했음에도, 이들 대부분은 청소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경우에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은 현재의 유효한 지원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악화와 실업률 증가에 비추어 이런 간극은 지속적으로 벌어질 소지가 있다. ✈

References

Cox W, Pavletich H. (2009). 5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09. Ratings for Metropolitan Markets. Belleville, IL: Demographia, and Christchurch, NZ: Performance Urban Planning. Accessed April 2009 at www.demographia.com.
Currie S, Foley K, Schwartz S, and Taylor-Lewis M. (2001). Bladerunners and Picasso Café: A case study evaluation of two work-based training

programs for disadvantaged youth. Ottawa: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2008 Child Poverty Report Card. Vancouver, BC: Author. Accessed March 2009 at www.firstcallbc.org.
Gaetz S & O'Grady B. (2002). Making money: Exploring the economy of young homeless work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6, 433-456.
Klein S, Griffin Cohen M, Garner T, Ivanova I, Lee M, Wallace B, & Young B. (2008). A poverty reduction plan for BC. Vancouver: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Accessed April 2009 at www.policyalternatives.ca.
Kushel MB, Yen IH, Gee L, & Courtney ME. (2007). Homelessness and health care access after emancipation. *Archives of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161, 986-993.
Laye A, & Murphy A. (2002). Between the cracks: Homeless youth in Vancouver.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Lloyd-Smith E, Kerr T, Zhang R, Montaner JS, & Wood E (2007). High prevalence of syringe sharing among street involved youth.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 1-6.
Marmot MG & Wilkinson MG. (1999).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urphy A, Poon C, & Weigel M. (2001). No place to call home: A profile of street youth in British Columbia.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Roy E, Haley N, Leclerc P, et al. (2001). Risk factors for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mong street youth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5, 557-560.
Rutman D, Hubberstey C, Feduniw A, & Brown E. (March 2006). When youth age out of care-Bulletin of Time 2 Findings.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Victoria.
Saewyc EM, MacKay L, Anderson J, & Drozda C. (2008). It's Not What You Think: Sexually Exploited Youth in British Columbia. Monograph,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SBN #: 978-0-9810280-0-2.
Saewyc EM, Brunanski D, Bingham D, Hunt S, Northcott M, Smith A,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Moving Upstream: The Health of Aboriginal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Monograph, Vancouver: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8-8.
Shields SA, Wong T, Mann J, Jolly AM, Haase D, Mahaffey S, Moses S, Morin M, Patrick DM, Predy G, Rossi M, & Sutherland D. (200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hlamydia infection in Canadian street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 384-390.
Snow D. (2008). A Roof Over Our Heads 2008: Affordable Housing and Homelessness Policy in Canada. Calgary, AB: Canada West Foundation. Accessed April 2009 at www.cwf.ca.
Smith A., Saewyc E., Albert M., MacKay L., Northcott M.,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Against the Odds: A Profile of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 978-1-895438-83-7.
Smith A, Stewart D, Peled M, Poon C, Saewyc E,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A Picture of Health: Highlights of the 2008 British Columbia Adolescent Health Survey.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9-5.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December 2008). Still on Our Streets...Results of the 2008 Metro Vancouver Homeless Count. Vancouver: Greater Vancouver Regional Steering Committee on Homelessness. Accessed April 2009 at <http://www.metrovancouver.org/planning/homelessness/Pages/Resources.aspx>.

[해외동향 리포트]

핀란드 -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¹⁾

University of Tampere | Jaana Lahteenmaa

오늘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한층 불안정한 상황과 미래에 직면해 있다. 몇몇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Bradley & van Hoof 2005; Ichiyo 2008) 많은 청소년에게 취업기회, 특히 영구적인 직장을 구할 기회가 점차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은 더 이상 미숙련의 사회경제체도상의 하층민이나, 고립 혹은 쇠퇴하는 지역 거주민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실업, 저직급배치(under-deployment), 하향이동의 문제는 상당한 불안과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관리직 및 전문직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radley & van Hoof 2005; Pahl 1996).

게다가 현재 전 세계적 경기침체가 미국, 유럽국가 및 많은 아시아 국가의 노동자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심한 피해를 입는 계층의 대다수는 청소년이다. 올해 5월 핀란드 전체 실업률은 약 9%에 달한 반면, 청소년의 실업률은 24%로 상승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청소년 실업에 대한 노동당국의 조치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개념이 적어도 어느 정도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높은 청소년 실업을 기록했던 1990년대의 경기침체기보다 더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은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에서 소규모지만, 매우 눈에 띄는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 단체 활동과 노동시장 내 청소년의 지속적 고용 불안정이라는 현상을 낳는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소년 세대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심한 불황을 겪은 이래로 많은 청소년들이 단기 고용 계약만을 맺어왔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일시적 실업의 지속을 경험하고 있다. 핀란드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과거의 불황으로부터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공분야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부나 지방자치정부는 단기 계약직만을 고용해왔다. 그래서 이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회의주의 및 일부의 경우 냉소주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현 경기침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프리케리아트 세대’에 대한 논쟁으로 본 논문을 시작한 후, 과거 몇 십 년과

1) 이 연구는 2009년 6월 25일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에서 발표 되었다.

현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유럽 특히 핀란드의 청소년 실업상황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업유형 뒤에 숨어있는 다양성과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모델(interpretation model)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때 진행중인 연구 과제(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재정후원을 받는 Work Precaria 과제. www.Nuorisotutkimus.fi/Work-precaria.. 참조)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수집한 실증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아직 자료 수집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료에 대한 해석 역시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임을 미리 밝혀둔다.

+ 프리케리아트 세대 논쟁

프리케리아트(불어로는 라 프레까리떼 *la précarité*)에 대한 논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성격을 띤다. 프레까리떼 혹은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 (그리고 핀란드어인 *prekari-aatti*를 포함한 많은 동의어)는 이탈리아에서 유래했으며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는 시간제 근무(part-time) 및 계약직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합성어로, 이 용어는 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precarious worker)를 새로운 사회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 역시 라 프레까리떼(*la précarité*)라는 용어가 원래 타인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불안정한**(precarious)에서 파생되었다고 지적한다(Korhonen et al. 2009, 13).

핀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유로-메이데이(Euro-May-Day)’ (Ross 2008; Hoikkala et al. 2006 참조) 및 일본의 ‘인디스 메이데이(Indies MayDay) 같은 시위를 통해 (Ichiyo 2008 참조) 인지도가 높아진 반프로케리티운동(anti-precarity movement)은 프리케리아트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최근 생겨난 사회학적 분석을 활

성화시켰다. 이러한 운동은 주로 성년 청소년들이 주도한다. 때로 **프리케리아트**라는 용어는 비공식 혹은 한정된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근무하면서 더 이상 정규직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하는 ‘job-ber’라는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점은 프리케리아트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포드주의식 임금노동을 더 나은 삶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ergio Bologna according to Grimm and Ronneberger 2007). 그러나 불안정 고용 혹은 비표준 채용이라는 요인은 첨단지식 분야를 지향하는 **창의적 계급**뿐 아니라 소매 및 저가 서비스 제공 노동자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예: Ross 2008) 그러므로 프리케리아트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구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예술가, 음악가, 작가 같은 **창의적인 계급**의 경우 일자리나 임금에 있어 불안정성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교육, 마케팅 분야, 심지어 간호사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Ross 2008, Precarias a la deriva-group 2009; Peltokoski et al. 2009). 핀란드 등의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하는 많은 청소년층이 프리케리아트를 구성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의 프리케리아트는 이민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Ross 2008).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핀란드에서 직장 불안정화는 특히 청소년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성별로 보자면 남성 노동시장보다는 여성 노동시장에서 발생한다(Miettinen 2007).

핀란드에서 단기 고용 계약은 과거의 경기불황 이후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핀란드 공공 분야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pätkätyöt**(핀란드어에서 매우 짧은 것, 몽당연필 혹은 단숨을 의미하는 **pätkä**와 핀란드어에서 일이라는 의미의 **työ(t)**을 합성한 신조어



이며, **pätkä**노동시장 등의 가능한 파생어가 존재한다) 같은 신조어를 활용해 논의해 왔다. 이 말은 기사들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으로, 정치 담론뿐 아니라 공식 노동시장에서 사용되었다. 핀란드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관련 논쟁에 프리케리아트(*prekariaatti*)라는 용어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프리케리아트는 매우 이질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프리케리아트에 관한 공개 토론 및 사회학 토론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핀란드에서 이러한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단기취업계약만을 맺어온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pätkätyöläiset*가 프리케리아트와 같은 의미인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 있다. 핀란드 프리케리아트운동이 발표한 최근의 성명에 따르면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Korhonen et al: "The declaration of the Precariat: from shit-work to barricades", 2009).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광범위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얻는 일자리는 기간을 고정시킨 계약에 근거하거나 아예 계약조차 맺지 않는 불안정한 직장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일자리를 좋아하는 청소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Sell 2007; Korhonen et al, 2009),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토론의 주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Miettinen 2007 참조).

+ 청소년 실업과 현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현재의 경기후퇴가 닥치기 여러 해 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등의 여러 유럽 국가에서 문제가 되어왔다(van Hoof & Bradley 2005). 핀란드에서 청소년 실업은 1990년대 초 발생한 과거 경기침

체 이후 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핀란드가 특히 심각한 불황을 겪었음을 의미하는 이른바 핀란드의 특수상황이 초래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드의 대외무역에 있어 각별한 중요성을 가졌던 이웃국가 소련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더 많은 정보는 위키피디아(WIKIPEDIA) "1990년대 초기 경기후퇴(early 1990s recession)" 참조).

핀란드 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침체에서 빠져나와 오늘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청소년 실업률은 다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 약간 호전되었으나, 현재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기침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 한 번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현재 전체 실업률은 9%인 반면 청소년 실업률은 24%라는 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현 상황 해석

현 경기침체 와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소년의 분위기 및 생각/감정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과거 경기침체기와 다른 상황을 조성하는 요인이 적어도 2가지가 있다. 핀란드인의 집단적 기억에는 불과 15년 전에 발생했던 과거 불황에 대한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핀란드인이 가족이나 친구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실업자를 두고 있을 정도였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적어도 불황의 그늘에서 살았다(Lämsä 2009 참조). 이러한 과거가 현 경기침체 환경 및 새로운 사회적 반발에 대처하기 위한 이들 청소년의 감성경쟁력(emotional competen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누구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핀란드 청소년은 일정한 직업을 찾는 일이, 특히 청소년들 자신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몇 년

간 고용 불안정화 문제가 핀란드에서 큰 화두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직업의 가치에 대한 의심의 여지없는 관념이 희미해져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신교도들의 사고방식이 사라져간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편 영구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안되는 꽤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지나친 공부의 결과로 핀란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기력이 쇠진했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받는 극도의 압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현상이다. (핀란드의 여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남학생보다 좋다는 것은 주지할 만하며,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란히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핀란드 사회에서 가정주부들의 모임이 활성화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이 직업과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 사이에 새로운 분열을 조성한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

+ 기존 연구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 핀란드 청소년의 직업관에 대한 양적 조사(예: Julkunen-Malmberg-Heinonen 1996) 및 질적 조사(Helvet et al. 1997, Paju 1999)가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근로지향(work orientation)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조사도 지난 경기침체기와 현재의 경기침체기 사이에 진행되었다(예: Myllyniemi 2007). 핀란드 주변국에서도 청소년의 근로지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북유럽 지역 내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로지향을 보여왔다. 90년대 중반에 핀란드의 남녀 모두 매우 높은 노동참가율을 보였으나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핀란드 근로 청소년, 특히 십대 청소년의 수

는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핀란드 청소년의 교육 기간 연장 및 높은 실업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Julkunen & Malmberg-Heinonen 1998, 98-99).

1990년대부터 이미 사회발전, 새로운 기회 및 유연성으로 인해 의무, 직업윤리와 순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Sernhede 1996).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해진 일부 연구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스웨덴의 한 연구는 3세대를 대상으로 직업관에 대해 조사했는데, 3세대 중 가장 늦게 출생한 1960년대생에게 있어 직업은 이전 세대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Almås 1997 according to 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특정 핀란드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은 직업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핀란드의 지난 세대들과 같이 삶의 가치의 유일한 무대로 여기지는 않는다(예: Kortteinen 1992). 1990년대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직업을 갖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유럽 지역 청소년의 90% 이상이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Julkunen and Malmberg-Heinonen 1998, 99).

핀란드인의 근로지향에 대한 최근 질적 연구에서, 근면을 의무의 여지없는 미덕으로 여기는 이른바 신교도 윤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핀란드 문화에서 다소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세대들, 특히 전후 세대는 과도하게 일 중심의 생활을 했지만(Siltala 1992; Kortteinen & Tuomikoski 1998) 이후의 청소년 세대는 보다 선택적인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중 일부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뿐이다(Sell 2007). 이와 관련해 특정 하위문화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ibid.).

이런 의견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세대가 실업상태에 놓일 경우 단일한 대응전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유럽 내 실업 청소년의 대응전략은 구직포기와 필자적 구직활동이라는 대조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Goede et al. 1996의 예 참조). 이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실업 청소년 사이에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필자는 오늘날 노동당국이 잘 만들어진 활성화 정책을 펴으로써 청소년들의 사고와 감성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기꺼이 수용된** 이상을 수행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의 불황 이래 핀란드의 노동시장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탈피해 변모해왔다(Kildal 2001). 그 결과 수동적인 대처보다는 능동적인 정책, 유인보다는 제재, 권리보다는 의무로의 혁신이라는 흐름이 생겨났다(ibid.).

핀란드에서 ‘당근과 채찍’ 정책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 취업 및 학업 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당근’ 전략은 지금까지 핀란드 내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25세 이하의 실업자가 중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즉, 일반적으로 16세에 종료하는 기초교육 과정 후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 의무적으로 학업에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만일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노동당국이 중등교육 수료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이들은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후에는 전적으로 실업자 지위를 상실하며 결국 실업자 지위에 동반되는 모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률은 과거 핀란드 경제불황의 결과로, ‘청소년 학업을 장려하고’ 더불어 불명예스러운 청소년 실업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요소에 기초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 (90년대 핀란드 불황기와 비교했을 때) 실업 청소년 사이에 새로운 대응전략이 부상하는 징후가 있는가?
- 그것들은 직업에 대한 태도, 직업은 미덕이라는 관념,

실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 정책과 대표적인 실천 도구들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 방법론과 연구자료

필자는 휴직상태가 지속되는 청소년에 대한 실증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핀란드 아카데미(Academy of Finland)의 재정후원을 받는 연구 과제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Work-preca’ 과제, www.nuorisotutkimus/work-preca 참조). 2008년에 시작된 본 연구 과제는 실증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의 목적은 핀란드 각지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며 현재의 경기침체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의 불안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 세대(17세~29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다. 연구를 막 시작할 당시 핀란드에도 경기침체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이로 인해 동 연구의 부분적 수정이 요구되었다.

핀란드의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실증자료를 취합한다. 동료 연구자들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질적 면담조사자료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필자는 핀란드 지방에서도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필자는 표본추출 없이 조사를 진행해 왔다(N=810(명), 이 중 716명은 원 목표집단인 16세 초과 30세 미만에 해당). 본 조사는 올해 5월 7일에서 25일 사이에 온라인 상에서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핀란드 노동부 홈페이지(www.mol.fi)에 링크된 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지에 답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홈페이지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며, 때로는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및 기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이용자수는 주당 수 천명에 달한다.

본 조사에서 질문의 초점은 취업과 실업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꿈·두려움, 청소년들의 교육과 그 난점 대응이점, 자신들의 교육수준에 맞는 직업을 발견한 경험·실업기의 감정과 행동양식·직장에 따라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의 이주 준비상태 등에 맞춰져 있다. 당연히 기본적 배경정보에 관한 질문도 있다. 질문지는 질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개의 개방형 질문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는 단답식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5월 25일 자료수집을 끝마쳤을 당시에는 본 논문의 주제에 가장 타당한 몇몇 변수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몇 부의 질적 응답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으나 수일 내에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하지만 필자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자료 중 일부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 연구과제의 몇몇 초기 발견

실업 청소년들의 대응전략과 생활양식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즉 근면한 근무태도를 미덕으로, 태만을 거의 범죄 혹은 수치로 여기는 그들의 사고방식 또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 연구자료에도 반영된 것같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오늘날의 실업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다. 노동당국의 조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는 모든 규칙과 제안을 따르는 데 열심인 경우부터 회의적이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 온라인 조사 응답자 중 3분의 2는 여성이며, 3분의 1은 남성이다. 표본은 16세에서 29세사이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21세에서 29세 사이이다. 응답자의 출신지는 핀란드의 5개 광역행정구역전체이다. 교육배경은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부터 직업훈련, 기술전문교육 그리고 대학 학위(석사수준)로 다양하다. 필자는 질적 응답자료에 기초하여 특히 대학을 마치자마자 현 경기침체와 실업상황에 직면한 대졸자들이 매우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현 경기침체 이전에 이미 취업과 실업을 경험한 pätkätyöläiset도 있는 듯하다. 여기서 필자는 필자의 연구과제에 가장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5개의 태도진술 질문들에 대한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응답자의 40%가 영

구적인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6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현 세대에게 있어 직장의 영구성 대 한시성이라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두 종류의 태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프리케리아트 및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분석이 쉬워질 수가 없다. 실업의 공포에 대한 태도는 실체가 불명확한 동시에 다양하다. 42%는 “기초소득만 있으면 실업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반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비율은 고작 58%에 불과하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같다면 영구적 직장이 아니라도 실업 보조금을 받기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진술에 39%는 반대, 61%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전술한 진술에 대한 응답과 매우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중 일시적 실업상태를 고수하는 이들이나 처음으로 실업상태에 빠진 이들에게는 근로의 미덕과 그와 반대의 이미지인 미고용 상태에 대해 두 개의 상반된 태도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근로의 미덕이라는 사회윤리가 좀 더 강하지만 압도적인 것은 아니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또한 우리 연구과제에서 동료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분류체계를 세워볼 수 있었다. 이는 본래 아노미와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머튼(Merton)의 전통적 분류체계와 유사하다(Merton 1938). 필자는 머튼의 분류를 부분 수정하였다. 이러한 착상, 즉 필자의 수정안은 새로운 것으로 본 논문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나, 이것이 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능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간 이 분류방식으로 필자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분류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미덕으로서의 근로에 대한 태도, 혹은 실체가 불분명한 목표로서의 직업과 이를 성취하거나 거부하는 수단의 관점에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세웠다.

머튼의 전통적 분류체계에서 문화적으로 결정된 목표(머튼의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공 목표)라는 항목

은 보수를 위한 근로로 대체되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결정된 수단들은 '직장을 찾거나 취업능력을 유지하는 수단 혹은 양자 모두를 위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수단으로 변경되었다. 후자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재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 과거의 훈련내용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 노동당국이 제공하는 모든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필자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확립했다. 이는 머튼의 전통적 분류체계로부터 유래한 구조와 기본 용어 및 반응 유형에 기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필자의 연구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참신하다 할 수 있겠다.

문화적으로 결정된 목표/구조적으로 결정된 수단, 역할 행동 = 보수를 위한 근로/구직을 위한 노력, 노동당국의 규칙준수

+	+	순응자
+	-	혁신가
-	+	의식주의자
-	-	회피주의자
-/+	-/+	모반자

-거부 +수용

o/+ 구조적으로 결정된 목표 및 수단과 새로운 목표 및 수단으로의 대체 거부

순응자(CONFORMIST) 이들은 문화적으로 결정지어진, 또한 당국에 의해 세워진, 목표를 수용하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재훈련과정을 거치고 보다 많은 교육(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아마도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까지)을 받음으로써 취업능력을 관리한다. 또한 이는 모두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한 취업이 용이하도록 자기자신을 유지하고, 능력을 배양하려 한다. 필자의 조사자료에서 대다수는 이 그룹에 속한 듯하다. 개방형 응답자료에는 수백장에 달하는 이력서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심지어는 필사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험이 기술되어 있

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훈련과정, 근시일 내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신규 교육, 언어와 그 밖의 과정에서 자신의 취업능력을 개발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자료가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취합된 자료로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직장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찾는 이 들임을 감안할 때, 주로 순응자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혁신가(INNOVATOR) 일자리를 찾는 실업 청소년 중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전일제 일자리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술 프로젝트 같은 무급의 일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정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가치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창조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Sell 2007 참조)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은 노동당국의 조치나 제재를 필요악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규칙과 규범부터의 회피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창조적일 일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두고 일을 혐오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직업 선택에 있어 까다로울 뿐이다. Work-Preca 연구 과제에서 Anna Sell은 일시적 휴직상태를 고집하는 문화 지향적 청소년들의 전술한 정신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Anna Sell은 헬싱키 대도시권에서 이들 청소년들과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했다(Sell 2007도 참조). 필자의 조사자료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몇몇 청소년들이 있는 듯하며 이들은 보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강한 근로유인이 있음을 강조한다.

의식주의자(RITUALIST) 본 논문에서 의식주의자는 표류자/ 뜨내기라고도 묘사할 수 있다. 의식주의자는

노동당국의 조치를 받아들여, 제공된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수동적이며 심지어 체념한 듯한 태도를 취한다. 의식주의자 그룹에서는 교육과정 혹은 견습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일뿐 아니라 그 어떤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중 일부는 창조적인 취미와, 언젠가 이 취미와 관련된 직업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꽤 막연하거나 꿈에 부풀 산만한 비전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필자의 연구 과제에서 Marjaana Kojo는 (Kojo & Sell 2009 참조) 청소년들의 질적 면담(qualitative interviews)을 실시했다. 핀란드에 경기침체가 도래하기 전 청소년 실업문제가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당시 그녀는 노동당국에 의해 조직된 트레이닝 워크숍(training workshop)에 방문, 위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경제활황기 노동정책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은 주로 노동 시장 구조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이유로 취업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매우 힘든 유년기, 불황 혹은 기타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혹여 있더라도, 낙천적이지 않았다. 필자의 조사 자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직 분석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회피주의자(RETREATIST) 구직이라는 목표와 직업을 얻기 위해 노동당국에 의해 부가된 ‘강제적인’ 수단까지 모든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회피주의자들은 사회에서 벗어나, 술, 마약 혹은 도박 등에 심각하게 중독되곤 한다. 회피주의자들은 노동당국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식품이나 기본적 필수품을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약간의 수입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회피주의자들 또한 회색시장이나 그와 유사한 시장에서 일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들이 필자의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만 하다. 그러나 조사 중 개방형 질의 응답에서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생관리라는 측면을 걱정하고, 실업이 계속되면 되는데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한다고 대답했다. 일부의 경우 매일 마약을 하거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재미있게 보이지 않아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청소년 실업률이 계속 지속되고 현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중독 문제를 가진 회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핀란드에서 과거 경기침체에 이리한 ‘상황’은 전개되었다(Paju & Vehviläinen 1999의 예 참조).

모반자(REBELS) 보수를 위한 직업을 절대로 지향하지 않는, 대안적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프리케리아트 그룹이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찾는 일은, 이러한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의 삶의 목표에서 길잡이 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때때로 이는 소비문화 및 매우 낮은 삶의 질을 수용하거나 심지어 감사하는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모반자 그룹은 노동당국의 규칙과 지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필자의 연구 과제에서 Anna Sell은 이런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을 인터뷰했다(2007; Kojo & Sell 2009). 본 분류체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혁신가’와 매우 유사하다.

+ 논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 현 상황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교육이 미래 직업을 보장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조치’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적과는 정반대로 노동시장 당국이나 심지어 제도로서의 국가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비판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전 사회의 정체성 위기를 확대, 심화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 세대에 더욱 더 심한 아노미(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제창한 고전적 사회학 정의를 사용)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 기원을 둔 급진적 프리케리아트 운동은 이미 이러한 아노미 상황을 조장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 프리케리아트 행동주의자들은 도둑질하는 것, 대중교통을 표 없이 타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이 불공평하며, 그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용인 될 수는 없더라도 불행히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필자의 연구 자료를 개략적으로 훑어보더라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준법정신이 있는 듯한 순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조차 아노미 상황이 부상하고 있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 반 이상의 응답자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몰래 일하는 것은 위험한 범죄는 아니지만, 핀란드법에는 저촉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탈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며 정책수행의 정당성과 당국의 권위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채찍과 당근을 가졌지만, 채찍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적극적 노동 정치학'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신화 그리고 먼 미래에나 겨우 닥칠 것처럼 말하는 "일자리 부족"이라는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업 청소년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연구자들의 의무가 아닌, 정치가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임무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

References

- Cox W, Pavletich H. (2009). 5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09. Ratings for Metropolitan Markets. Belleville, IL: Demographia, and Christchurch, NZ: Performance Urban Planning. Accessed April 2009 at www.demographia.com.
- Currie S, Foley K, Schwartz S, and Taylor-Lewis M. (2001). Bladder runners and Pica-sso Café: A case study evaluation of two work-based training programs for disadvantaged youth. Ottawa: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 First Call: BC Child and Youth Advocacy Coalition (2008). 2008 Child Poverty Report Card. Vancouver, BC: Author. Accessed March 2009 at www.firstcallbc.org.
- Gaetz S & O'Grady B. (2002). Making money: Exploring the economy of young homeless work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6, 433-456.
- Klein S, Griffin Cohen M, Garner T, Ivanova I, Lee M, Wallace B, & Young B. (2008). A poverty reduction plan for BC. Vancouver: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Accessed April 2009 at www.policyalternatives.ca.
- Kushel MB, Yen IH, Gee L, & Courtney ME. (2007). Homelessness and health care access after emancipation. Archives of Pediatric & Adolescent Medicine, 161, 986-993.
- Laye A, & Murphy A. (2002). Between the cracks: Homeless youth in Vancouver.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 Lloyd-Smith E, Kerr T, Zhang R, Montaner JS, & Wood E (2007). High prevalence of syringe sharing among street involved youth.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 1-6.
- Marmot MG & Wilkinson MG. (1999).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phy A, Poon C, & Weigel M. (2001). No place to call home: A profile of street youth in British Columbia. Burnaby, BC, Canada: The McCreary Centre Society.
- Roy E, Haley N, Leclerc P, et al. (2001). Risk factors for hepatitis C virus infection among street youths.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5, 557-560.
- Rutman D, Hubberstey C, Feduniw A, & Brown E. (March 2006). When youth age out of care—Bulletin of Time 2 Findings.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Victoria.
- Saewyc EM, MacKay L, Anderson J, & Drozda C. (2008). It's Not What You Think: Sexually Exploited Youth in British Columbia. Monograph,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SBN #: 978-0-9810280-0-2.
- Saewyc EM, Brunanski D, Bingham D, Hunt S, Northcott M, Smith A,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Moving Upstream: The Health of Aboriginal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Monograph, Vancouver: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8-8.
- Shields SA, Wong T, Mann J, Jolly AM, Haase D, Mahaffey S, Moses S, Morin M, Patrick DM, Predy G, Rossi M, & Sutherland D. (2004).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hlamydia infection in Canadian street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 384-390.
- Snow D. (2008). A Roof Over Our Heads 2008: Affordable Housing and Homelessness Policy in Canada. Calgary, AB: Canada West Foundation. Accessed April 2009 at www.cwf.ca.
- Smith A, Saewyc E., Albert M., MacKay L., Northcott M.,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7). Against the Odds: A Profile of Marginalized and Street-Involved Youth in BC.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 978-1-895438-83-7.
- Smith A, Stewart D, Peled M, Poon C, Saewyc E, & the McCreary Centre Society (2009). A Picture of Health: Highlights of the 2008 British Columbia Adolescent Health Survey. Vancouver, BC: McCreary Centre Society. ISBN#: 978-1-895438-89-5.
-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December 2008). Still on Our Streets... Results of the 2008 Metro Vancouver Homeless Count. Vancouver: Greater Vancouver Regional Steering Committee on Homelessness. Accessed April 2009 at <http://www.metrovancouver.org/planning/homelessness/Pages/Resources.aspx>.

Dynamic Korea

내가 사랑하는 B-Boy



청심국제고등학교 | 김태영

유럽 어느 나라에선가 공원에서 한국의 비보이들이 열심히 비보이 춤을 추는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유럽 젊은이들이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동하였고, 자랑스러움과 함께 내 몸속에서 그 무엇인가 솟아오르는 뜨거움을 느꼈다. 또한 우리의 비보이들이 세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겪었던 힘들었던 과정, 고통, 부상 등을 이겨낸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리포터는 이 훌륭한 비보이의 세계를 내 또래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다.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선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많은 비보이들, 그리고 최고의 비보이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한가지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세계 무대에서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는 **희망(희망)**을 찾아주고 싶었다.

첫 취재를 나가면서 '비보이팀들의 호응도와 협조가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질까? 또 나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학교기숙사 생활을 하는 터라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 부득이 주말을 이용해야만 했다. 몇 개 팀 중 **라스트포원**과 **갬블러크루** 두 팀을 인터뷰한 내용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B-Boy에 관한 소수의 논문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이 기사를 작성했다.

6월 하순 늦은 밤 시간에 지방공연을 끝내고 돌아온 **라스트포원**은 팀원들은 숙소로 돌아가고, 리더 조성국팀장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황경석매니저와 강남의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알려주고 많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날에는 또 다른 팀 **갬블러크루**를 만나기 위하여 갬블러크루 전용연습장이 있는 양재동의 조용한 건물 지하1층으로 찾아갔다. 박지훈팀장(리더)으로부터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전용연습장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넓었고 깨끗했다. 그 안에는 별도의 룸으로 구성된 3개의 연습장이 있는데 2개의 룸에서는 여러 명이 온몸이 땀에 흥건한 채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TV에 다큐멘터리나 광고에서 보던 진짜 광경들이었다. 경쾌한 힙합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는 파워풀한 춤임을 알았다. 상의를 벗은 채 추는 비보이도 있었는데 배에 소위 **왕자**가 예술이었다. 몸짱이라 불리는 연예인 권상우, 송승헌보다 더 멋져 보였다. 구석에서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 학생이 계속해서 머리돌리기(헤드스핀)를 하는데 돌다가 쓰러지면 또 하고 또 하고

A genius can't beat a hard worker,
but the hard worker is defeated by a person who finds it delightful to work.



있었다. 보는 내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한쪽에는 그들이 국내,외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 트로피 등 멋진 수상품들이 보란 듯이 잘 진열되어 있었다.

리포터는 취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비보이 세계최정상에 오른 이 고수(리더)들은 도대체 몇 살부터 비보이를 시작했고, 솔직히 학교는 열심히 다녔는지 그리고 장래의 꿈이 무엇인가였다. 두 리더는 비슷하게 중학교 때부터 비보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추었다. 학교교실 뒤편이나 살고 있는 동네 길거리, 때와 장소 관계없이 당시 인기연예인들이 추는 춤을 흉내 내곤 했다. 물론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것보다 남들 앞에 비보이를 잘 추는 것이 더 중요했다. 실력이 늘면서 학교 또는 동네에서 가장 잘 추게 되었고, 다른 학교나 동네에서 제일 잘 추는 사람과 소위 시합(Battle)을 벌여 우위를 가렸다. 이때부터 진정한 비보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시험이 다가올수록 같이 추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씩 학교로 돌아갔다.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주위사람들의 심한반대 등에 고민했지만 이들은 비보이에 인생을 걸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비보이춤에 미친 듯이 매진한다. 우리가 그 인내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외

로운 길인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 그들은 비슷한 나이의 대학생, 또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세상을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성숙해 보였다. 아니 적어도 세상의 쓴맛, 단맛은 다 본 듯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들을 잘했고 조리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답해주었다. 이번에는 학교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물어 보았다. 이 질문에 그들은 공부를 다소 소홀히 했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잘 하지 못하는 공부보다 내가 좋아하는 비보이에 인생을 걸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세계정상에 올라섰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충분히 녹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한가지(비보이)에 쏟아 부은 노력과 열정(Passion)은 정말 대단했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그 다음으로, 비보이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물어봤다. 이 질문에 그들은 동의하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공부를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항변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열심히 춤을 추었다. 남들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그 이상으로 처절하게 춤을 추었다. 비보이 초기인 1990년대 기성세대들은 비보이를 비행청소년정도로 인식을 했었고, 이해 못할 춤과 옷차림, 힙합문화에도 부정적이었다. 안정적 직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에게도 그들은 불안해 보였다. 그런 부정

적 시선들을 남김없이 털어버리려고 불가능해 보이는 껌기를 하고 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부상에 고통스러워도 말도 못하고 눈물을 감추며 춤을 추었을 것이다. 이런 열정(Passion)이 없었다면 지금 그들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을까?

다행스러운 일은 부정적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언론들이 비보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개하자 좋은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동아리도 많이 생겼고, 대기업광고에 모델로 나오고, 크고 작은 경연대회가 열리는 등 기성세대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다. 건전한 비보이문화가 고개를 들면서 학생들도 취미삼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장기를 자랑하려고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구한다. 아니면 비보이연습장(예:비보이아카데미)에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기도 한다. 부모가 연습장에 와서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자녀를 등록시켜 주기도 한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비보이 문화를 보다 건전하게 정착시키고,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를 풀 수 있는 출구 역할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들이 고민하는 또 다른 문제는 비보이들이 추는 춤은 곡예나 서커스정도로 본다는 점이다. 소위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독창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이 처음에는 재미있고 신기하게 보지만 금방 싫증을 낸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해결책으로 나온 게 타 분야와의 협연(協演)이다. 오페라, 인형극, 국악 등과 협연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다. 물론 상업적인 마케팅 관련자들이 만든 공연이지만 일정부분 비보이가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다. 이 부분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있다. 이런 협연은 진정한 비보이가 아니고 길게 보면 비보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비보이는 하나하나 연결동작을 보고 느끼고 감상할 줄 알아야 진정한 비보이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 한다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춤이란 가락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스스로 팔다리나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자신이 좋아하는 한가지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세계무대에서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



나타내는 동작 또는 무용으로 볼 수 있다. 비보이 춤 행 위도 음악이 있고 그에 따라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B-Boy는 확실한 춤의 한 장르라 볼 수 있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마지막 남은 고민은 가장 무서운 **부상**이다. 크고 작은 부상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를 하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실제로 한두 번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갬블 러크루의 박팀장의 경우, 헤드스핀을 하다가 목디스크가 발생해서 고생하다가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쉽게 헤드스핀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할까? 짧은 시간에 자문해봤다.

이젠 장래에 대하여 물어봤다. 각 팀의 리더들인 이들은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평생 직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상상을 초월하게 격렬한 비보이춤은 취미활동으로만 춘다면 오래 출 수 있지만 고수들은 30대를 넘기기 힘들어 보였다. 사실 비보이가 언제 그 생명을 다 할지, 대중들의 관심이 언제

(Passion)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비보이만으로도 경제적인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비보이들이 비보잉(B-Boying) 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선두그룹에 속한 비보이들은 크고 작은 공연 그리고 광고출연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광고를 예를 들면 e-편한세상, 리바이스, 아디다스, 퓨마, KT메가패스, 삼성전자, 녹차베지밀 등 수없이 많다.



떨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비보이에 올인한 비보이들, 비보이팀, 관계자들은 미래가 불안한 건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그들 중에 일부는 연예인을 희망하는 이도 있고 공연기획자, 매니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업을 생각하지만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장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고민이고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하기로 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비보이 강국이 된 비결을 물어봤다.

첫째로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히 연습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밝은 표정으로 답하였다. 본 리포터는 이들이 내뿜는 열정

셋째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및 관광소득을 들 수 있다. 최근1~2년 사이 비보이는 속명여대 국악팀과 협연, 최초로 세워진 홍대 앞의 비보이 전용극장에서 보여준 뮤지컬공연 B-Boy를 사랑한 발레리나,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은 인형극 마리오네트, 영화 등과 다양한 협연을 하였다.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선보임으로써 보다 많은 계층을 흡수할 수 있고 관광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는 예는 라스트포원의 이명박대통령 취임식 때 속명여대 국악팀과의 협연, 힐러리미국무부장관 내한 시 공연이다. 과거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장기공연 되었던 난타, 점프, 도깨비스툼 같이 B-Boy를 사랑한 발레리나도 현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비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 비보이팀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나아가 이 관심을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뷰 말미에 들은 감명 깊었던 점은 두 팀이 소의 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공연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수입을 자랑하는 연예인에 비하면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선행에는 그 누구 못지않음을 알 수 있었다. 라스트포원의 경우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이란 MBC 프로그램에 공연, 보건복지부 금연홍보대사로 봉사하면서 여러 지역 고등학교에 금연 홍보공연도 하였다. 비슷한 봉사를 하는 갬블리크루의 박지훈팀장은 처음에는 팀홍보 차원에서 자선공연을 했지만 장애우들의 순수한 마음을 읽고는, 그 뒤부터 진심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됐다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본 리포터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성세대들은 비보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과 일부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부분 없어졌다. 비보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Passion)과 본인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즐긴다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이 가슴속 깊이 와 닿았다. 지금 길거리 어디에선가 자신만의 무대에서 열심히 비보이를 하고, 이 세계를 동경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우리 모두 격려하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나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 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A genius can't beat a hard worker, but the hard worker is defeated by a person who finds it delightful to work. ♪

* B-Boy에 관한 참고자료

B-Boy(비보이)의 유래를 보면 Break Dance의 약자로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남자**를 지칭한다. B-boying은 음악을 틀다가 중간브레이크타임(노래중간에 비트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타임)때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것을 말하고 기원을 보면 1970년대 미국 뉴욕 뒷골목에 흑인들과 불법이민으로 급증한 히스패닉계 10대, 20대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 그 때 유일한 안식처가 된 힙합의 한 부류이다. 험악한 그들도 춤을 출 때만은 서로 총질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때로는 상대방 구역으로 몰려가 춤으로 시위를 하는데 상대방의 기를 꺾으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과격한 동작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댄스가 오늘날처럼 발달하게 된 계기이다. 비보이들의 경연대회명칭이 **배틀Battle**이란 말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태동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비보이의 정신은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정신의 바탕에는 평화와 안식을 갈구하는 또한 폭력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의지가 강하게 숨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하면 안 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미군방송(AFKN)에서 매주 방송하던 **소울트레인(Soultrain)**이란 프로그램에서 흑인들이 바닥에 몸을 댄 채 빙빙 돌아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이를 흉내내고 연습했던 주 멤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그리고 **와와의 현진영**이다.

1997년 **익스프레션(Expression)**이란 팀이 결성되면서 한국의 비보이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01년에 전국적으로 참가하는 규모의 대회가 열리면서 활성화가 된다. 이 시기에 출전한 각 팀의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소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독일에서 열린 **Battle of the year**에 참가해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면서 활짝 날개를 편다.

비보이의 국내현황은 공식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스트리트댄스협회가 있으며 활동하는 팀수는 공식적인집계는 각 지역별로 소수 클럽스타일로 된 비공식적 팀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간략하게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한 비보이팀을 기준으로 보면

1세대 : 비주얼쇼크, 서브웨이, 스파크, 익스프레션

2세대 : 갬블러, 리버스, 익스트림

3세대 : 라스트포원이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는 약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10여 개 팀의 100명 정도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세계에서 열리는 수많은 대회 중 가장 인정받는 대회와 한국 팀 수상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배틀 오브 더 이어 (Battle of the year) / 독일 개최 ‘비보이 월드컵’ 이라 불린다.

2002년 ‘익스프레션’ 우승

2004년 ‘갬블러크루’ 우승

2005년 ‘라스트포원’ 우승

② 프리스타일 세션 (Freestyle Session) / 199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

2005년 ‘T.G. Breakerz’ 우승

③ 레드 불 비씨 원(Red Bull BC ONE)

④ 유케이-비보이 챔피언십(UK B-Boy Championship) / 영국 개최

2004년 ‘프로젝트 소울’ 우승

2005년 ‘한국연합팀’ 우승

⑤ 언더그라운드 배틀 (Underground Republic Battle) / 스페인개최

2005년 ‘라스트포원’ 우승

⑥ 크루 배틀대회 (U.S.A. B-Boy Battle) /U.S.A

2006년 ‘갬블러크루’ 우승

또한 국내에는

-한국비보이 올스타전-

-SM Maximum B-Boy 대회-

-Battle of the year KOREA-

-CYON 비보이대회-가 있다.

* 자료출처 :

B-Boy - 고정욱 저, 세상모든책 출판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 김재현 저, 팝콘북스 출판

거리의 춤꾼 우상이 되다

한국 비보이 세계 1위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청소년 복지론』 홍봉선, 남미애 공저

2009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 일 시 : 2009년 7월 7일(화) 오후 2시~6시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최 : 행정안전부 | 주 관 : 연세대학교 회계연구센터 GUIDE STAR (재) 한국가이드스타 | 후 원 : 매일경제 대한상공회의소 SK telecom



청심국제고등학교 | 김태영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340억에 가까운 재산을 청소년장학과 복지사업을 위한 '청계'재단 설립에 기부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 기부문화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적교육에만 치우친 조기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교육도 일찍 시킬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훌륭한 교육자이시고 우리나라 큰 어른이시며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계신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www.guidestar.or.kr)의 송 자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부문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데 깊이 새겨들을 좋은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찾아뵈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인터뷰할 시간을 내 주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자의 뜻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전에 많은 관련자료를 검색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많은 일을 하신 발자취를 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그 세대(70대)에 비해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셨고, 상반되게 자신에게는 철저한 관리를 해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정정하시고 유머도 풍부하신 게 한마디로 '쿨'하신 분이셨다.

오늘 '청소년에게 미치는 기부문화'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실무적인 질문에는 '가이드스타' 창립 때부터 관장해 오신 박두준 사무국장님께서 친절하게 도와 주셨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기부문화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학생 신분인 저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년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 기부문화에 있어서 한국가이드스타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빌게이츠가 50살도 안 돼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그는 재산의 절반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효과적인 기부를 위하여 은퇴하고 봉사에만 전념하고 있지요. 그는 'Creative Capitalism' 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진 자가 가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표시하는 나눔의 문화를 확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재단에서 나눠준 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병을 고치고 문맹을 퇴치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미국사회가 삶의 질이 높은 이유는 기부참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만달러 소득자의 68%는 어떤 식이든 기부에 참여를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5%정도가 기부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한 사람, 두 사람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드스타가 기부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계속 노력할 겁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전국 비영리기관 분야를 총 망라하는 국제적인 시민사회정보시스템(CSIS: Civil Society Information System) 가이드스타(GuideStar)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 회계, 조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부를 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 등은 등록된 전체 기관의 검색과 정보열람을 통해 자율적으로 용이하게 기부할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위 정보는 정부, 학계, 언론 등에게 공식적인 표준자료로 제공되어 우리나라 비영리부문 선진화를 위해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어떤 계기로 한국가이드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14위 경제대국이지만 개인기부가 보편화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개인기부는 전체기부의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 즉 투명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단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를 만들어 봉사하면서도 이런 단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과거시절 전공도 회계학이었으니 잘 아는 분야이고,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작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하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수재해민 돕기 등을 쉽게 떠올리는데, 어디에다 기부를 해야 좋을지 잘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를 요청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믿고 기부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쉽게 기부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기부대상자를 찾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또는 관련협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금방송이나 뉴스를 보고 기부대상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 주변의 소개로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요청하면 대체적으로 작은 금액은 기부를 잘 합니다. 또 종교단체에서도 기부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요. 아직 기부할 곳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이드스타를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봉사단체 검색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만 계속 보완이 필요합니다. 곧 마무리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례로 국제청에서는 10억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부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야지요.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www.chest.or.kr)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눔과 기부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28.8%), 독거노인 (25.9%), 장애인(19.3%), 노숙인(9.5%)순이었다

아직까지 부유층이 기부에 소극적인데, 단순히 기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Give & Take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를 인정하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자는 기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기부하면 정부에서도 최고 5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지요. 유산기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부역사가 짧고 부자도 적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기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아야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세습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내는 돈은 당연하다고 보는 경향이 큰데,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부자를 인정해야 그들도 기분 좋게 또 떳떳하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반대급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부를 받는 쪽에서 투명하게 또 의미 있게 기부금을 잘 사용하고, 공개를 해서 기부자들의 긍지를 높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갈수록 기부문화가 잘 조성되리라 봅니다.

개인기부자를 위해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부터는 개인 기부를 할 경우 세금혜택을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인데, 미국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더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개인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현재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지요.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면 소득공제도 따라서 많이 받는 순환구조가 되어야지요. 기부하는 분들이 소득 공제를 노리고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업도 5% 공제를 받는데 부족하지요. 기업도 이익이 나야 기부도 가능한데 요즘 같은 불

경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개인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던데 보다 더 다양하게 확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보다 신뢰도가 높고 소속감도 있으니까요. 종교 자체가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눔문화가 조성되어 있지요.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단체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학교에서 하는 모금운동에 성금을 낸다(69.5%), 어려운 이웃에 자원봉사를 한다(10.3%), TV나 다른 곳에서 하는 모금운동에 성금을 낸다(8.5%),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7.9%)순 이었다

기부활성화의 가장 지름길은 투명성에 있다고 봅니다. 가이드스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활발하게 기부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기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부하는 분들은 투명하고 의미 있게 쓰여지기를 바랄 겁니다.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게 기본이듯이 기부 또한 투명하게 쓰여야 하는 점은 가장 기본입니다. 투명하지 않으면 기부자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기부자들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나 몹시 궁금해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부를 거부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죠. 최근 투명성을 강조해서인지 기부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타가 사회단체들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타는 사회단체와 기부자 중간에서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기부액이 적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평가가 인색해 보입니다. 기업은 좀 더 많은 기부를 하고 따라서 성과도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에 좀 이른가요?

기업은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에 기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 주주에게 배당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이 나면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의 기부는 당연하다고 보며 평가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기업들은 가까운 일본보다 기부가 활발합니다. 이런 기업의 기부문화를 인정하고 높게 평가해야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5%까지 공제한도를 주고 3년간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가이드스타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180만개 단체가 정보를 공개했는데, 한국가이드스타에는 903개 단체가 공개를 하였고 이중 10%만이 회계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보다 많은 공개를 유도하려면 좋은 방법을 있는지요?

미국과 영국은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비롯한 단체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기부자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포함하여 온 사회가 더불어 투명해져야 합니다. 기부자입장에서 보면 공개한

단체가 더 신뢰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에 확대될 겁니다.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정보공시는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쓰는 입장이다 보니 기부를 할 수 있는 액수가 적고 기부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정성을 나누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기부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기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커서 스스럼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신분으로 꼭 '돈'으로 기부해야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한다던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손을 잡아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기부입니다. 또 가족을 위한 봉사도 있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이용해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친구들과끼리 팀을 짜서도 가능하겠지요.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좋은 봉사입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심부름할 때마다 용돈을 받습니다. 이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 기부를 합니다.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기부문화가 만들어 지는 거죠. 기부의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들에게 '기부문화'를 교육시키고 생활화시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미래'이사장님도 겸임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학교가 나눔과 기부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곳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이웃을 돕자는데 내고, 대부분 이 정도에 그칩니다. 나눔의 의미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누는 일을 반복해서 체질화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내고 난 후의 기분을 묻는 설문조사에는 마음이 뿌듯하다(55.2%)이고 나머지 답변은 아무생각이 들지 않는다(19.9%), 성금을 내는 모금운동이 너무 많다(9.0%), 돈이 아깝다(5%), 내가 어려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4.5%)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들은 '기부'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부'를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지요. 무엇보다도 참여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대학의 경우를 보면 대학평가를 할 때 동문들이 얼마를 기부하고 얼마나 기부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프린스턴대학은 동문들의 참여도가 68%이나 됩니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기부하는 습관이 바람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기부할 곳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기부해 주십시오' 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모금 마케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위 모금전문가

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식의 변화속도는 무척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잘 정제시키고 유통시켜 잠재된 기부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다양하게 기부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기부상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부상품도 다양화하고 관련전문가를 훈련시켜 모금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7월초 가이드스타에서 주관한 '2009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를 보면 최근 기부문화는 온라인모금운동으로 조금씩 활성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온라인모금에만 집중하는 거보다, 오프라인도 병행해야 좋을 텐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이 최상입니다. 오프라인 쪽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마케팅전문가들이 여러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 중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소액을 기부하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런 게 선진 기부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사와 기업이 제휴하여 포인트라던가 마일리지를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면 온라인 기부가 빠른 시간에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1992년도 연세대학교총장이실 때 4년간 발전기금을 그 당시 엄청난 금액 1,500억을 모금하셔서 대단한 화제가 되었는데, 연세대동문들의 단결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CEO총장으로 불리셨는데, 그 때 상황을 잠시 말씀해주시지요.

연세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보직을 맡을 생각이 없었는데 재무처장을 거쳐 기획실장을 맡게 되었지요. 개교 100주년을 맞춰 100억 모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버드대가 1등 학교인 이유는 가장 부자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500억 원 모금공약으로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거의 모든 대기업회장을 찾아가 만났지요. 동문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40개 넘는 외국 도시를 돌았지요. 나만큼 세계를 돌아다닌 총장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문들에게 저금통 5만개를 돌렸습니다.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대외협력처를 신설했고 입학처도 만들어 지원자 중에서 선별하던 수동적인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이미 연세대총장, 명지대총장, 장관, 회장, 이사장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 또 다시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 교장선생님이 되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학이 잘 되려면 고등학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균형을 갖춘 전인적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지요. 인재를 양식하기에 급급한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인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교장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서는 평소에 '나눠주는 부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걸로 압니다. 대한민국

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꼭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벌 수 있는 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한 저축해라.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나눠라.' 이 세 가지를 항상 반복하라고 당부하지요.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둘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순서도 명확합니다. 성장이 먼저입니다. 돈이 있는 자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충분히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기 삶을 꾸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 잘 새겨두고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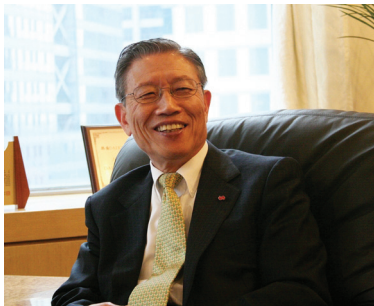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기부문화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부탁드립니다도 될까요?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 자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인터뷰에 가장 애써 주신 한보라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는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마더 테레사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송 자(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1936	대전 출생
1955-1959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상학과 졸업
1960-1962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1964-1967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1967-1976	커네티컷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1976-1996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
1982-1983	한국경영학회장
1987-1988	한국회계학회장
1992-1996	연세대학교 총장
1997-2000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이사
1997-2000	명지대학교 총장
2001-2007	연대교 회장
2004-현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이사장
2006-현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감사
2007-현재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
2008-현재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수 상	199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교육발전에 헌신해온 공로) 1997년 제31회 조세의 날 은탑산업훈장 (모범납세자)

주요저서	〈회계원리〉 (법문사, 1992) 〈관리회계원리〉 (박영사) 〈관리경제학〉 (박영사, 1988) 〈회계감사〉 (법문사, 1992) 〈원가회계〉 (대영사, 1992) 〈국제회계〉 (법경출판사, 1986) 〈통일사회로 가는 길〉 (공저, 도서출판 오름, 1996) 〈한가지라도 꼭 부러지면 되는거요〉 (중앙M&B, 1997) 〈전교육부장관이 말하는 현실에서 살아남는방법〉 (아이프랜드, 2003)
------	---

학술 정보회원 가입 안내

○ 회원 자격 및 대상 : 본원 연구 결과물을 원하는 개인 및 기관

○ 회비 및 회원기간

- 일반회원 : 20,000원 / 년
- 전문회원 : 50,000원 / 년
- 기관회원 : 100,000원 / 년
- 회원기간 : 연구보고서(9.1 ~ 8. 31) / 한국청소년연구(1. 1 ~ 12. 31)

○ 회원에 대한 특전

유형	회원별서비스	연회비	공동서비스
일반회원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4회	20,000원	- 본원 자료실 자유이용 - 본원 발간물(기관고유과제보고서) 구매 시 할인 혜택(정가의 30%) - 메일링서비스 - 기타 가능한 서비스
전문회원	- 연고보고서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10종 (기관고유과제에 한하며, 회원이 직접 선택함)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4회	50,000원	
기관회원	- 연고보고서 :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20종 (기관고유과제에 한하며, 회원이 직접 선택함) - 한국청소년연구(학술논문집) : 연 2회	100,000원	

○ 회원가입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신청서(www.nypi.re.kr)를 작성하여, 입금증과 함께 우편이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입방법

- 납입은행 : 농협 368-17-001637(예금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입문의

- 주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술정보팀
- 전화 : 02)2188-8877 / 8844 FAX : 02)2188-8819
- Home Page : www.nypi.re.kr
- E-mail : docu@nypi.re.kr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서울대학교



불곡고등학교 | 차욱현

1. 글로벌 교육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다.

처음에 내가 써야 할 주제가 글로벌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동안 멍한 느낌이었다. 글로벌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시에 시달리는 고 3 신분인 내가 글로벌 교육이라는 거창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글로벌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다. 이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나의 글쓰기는 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외국인 선생님을 통해 영어를 배운다고 그것이 글로벌 교육은 아닐 것이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과연 글로벌 교육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은 얼마나 될까? 우선 이 글로벌 교육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글로벌 교육이란 결국 세계의 뛰어난 교육 환경만큼 우리의 교육 환경을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기 위한 제반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의 일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내가 체험했던 교육에서 글로벌 교육의 모습이라고 느껴졌던 요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고 3 신분인 나에게 늘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입시 교육이었으며 진학 문제였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교육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는 내 자신의 체험이 너무 빈약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점을 써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등학교의 수업 과정은 입시에 대한 커다란 개혁이 없이는 글로벌 교육에 대한 논의



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서 과연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 1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글로벌 교육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2. 세계 118위의 대학에서 50위의 대학으로

2004년 서울대의 종합평가순위는 118위에 불과했다. 세계 100위안에도 들지 못하는 대학교.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로 평가받는 서울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2008년 대학 평가순위에서 50위로 뛰어올랐다.(The Times Higher Education - QS World University Ranking, 2008) 불과 4년 만에 50위 이상이 상승한 것이었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의 순위로는 실망스러운 수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서울대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상하이 지아오통대가 실시한 학문 분야별 세계대학평가 Pub(SCI 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수) 부문에서 공학이 세계 6위, 자연과학이 세계 14위에 오를 정도로 이공계 분야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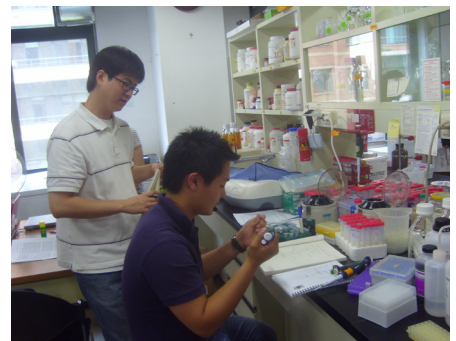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서울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글로벌 교육에 대한 서울대의 관심이다. 서울대는 해외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교 중 하나이다. 국제교류 현황에 있어서 2008년 세계 40여개 국가와 500여건의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학술교류협정으로 대학본부 협정, 단과대학별 협정, 연구기관 협정 등을 맺고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3월 런던 시티 대학과의 만남에서 서울대와 런던 시티대학의 공동학위수여, 금융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

에서 장기간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이장무 총장은 세계의 여러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국제화사업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그 7가지 사업을 소개하면서 특히 관심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는 **국제하계강좌(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하계강좌란 학문 분야별로 세계적인 교수를 초빙하여 하계강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는 이를 통해 해당 학문 분야 연구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영어강의를 활성화시키며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6월 23일부터 6주간 국제하계강좌가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하버드대 John S. Schoeberlein(중앙아시아 분야) 교수, 예일대 동아시아 언어학 및 문학부 John Whittier Treat 학과장, 프린스턴대 Stephen Teiser(중국 문화 및 역사) 등 세계적인 석학들로 교수진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은 국내 학생들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2008년 4월부터 전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해외 11개국 69개 대학에서 106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해 40 여 명의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진행하였다.

두번째로 서울대학교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Future Star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 국제기관 등에 단기 파견되는 프로그램으로 신진 기술 및 교양들을 교양시키며 국제적 실무경험 및 세계적 안목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서울대학교는 **신문명 프로젝트(New Civilizatio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SAF 프로그램과 스탠포드&예일대 여름학기 장학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SAF 프로그램은 토플성적 제출 등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치면 세계 각국의 원하는 대학에서 1~2학기를 수학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의 방문 수학이므로 외국 대학에 수강료 납부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규 등록금보다 10~40% 저렴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SAF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4.3을 기준으로 3.2 이상이 되어야하며 TOEFL IBT 79이상인 학부생이면 가능하다. 스탠포드&예일대 여름학기 장학 프로그램은 여름방학기간 동안 스탠포드대나 예일대에 파견되어 어학강좌를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30여명의 학생들이 파견되며 예일대의 경우 학업능력테스트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정규 여름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스탠포드



유전공학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서울대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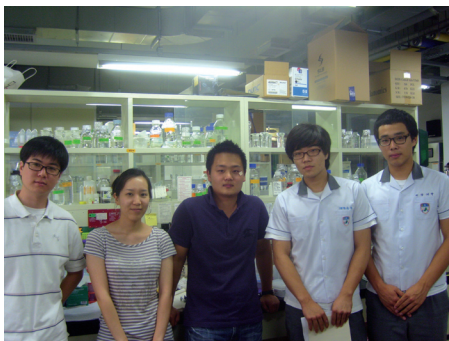
포드대의 경우 재학생들과 함께 out-of-class 활동에 참가한다. 이 밖에 Asia in Today World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는 일본 큐슈대에서 개발한 Asia in Today's World (ATW) 프로그램에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수업 수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큐슈대에서 제공하는 Asian Studies에 관한 강좌(영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단기, 장기해외연수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 단기해외연수의 경우 여름방학 중 1~2개월 이내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장기해외연수의 경우 6개월의 연수기간이 정해져있다. 단기와 장기 모두 대학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네 번째로 서울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Road to SNU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매학기 30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학위프로그램과 교육 내용을 국제화하고 캠퍼스 국제화를 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나아가 국제 이해의 증진, 인력의 상호작용, 교육의 상호보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재학생에게도 국내에서 국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외국인 우수 학생 장학 프로그램(Th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교수 유치 및 지원 프로젝트, 국제회관 건립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7가지 국제화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국제적 수준의 대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3. 글로벌 교육의 방향과 글로벌 교육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서울대학교의 국제화사업을 통해 나는 글로벌 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글로벌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안에서의 글로벌화와 밖으로의 글로벌화가 바로 그 방향이다. 안에서의 글로벌화란 각 학교 스스로 해외 유명한 대학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학교로 끌어들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뛰어난 교수들을 초빙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밖으로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즉, 자기 학교의 인재들이 해외의 뛰어난 학교에서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국제적인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대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듯 했다. 즉, 국제체계강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세계적 수준의 외국인 교수 유치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으로의 글로벌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및 신문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밖으로의 글로벌화를 이



유전공학연구실에서

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의 글로벌화를 통해 서울대학교는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인력의 세계적 교류는 필연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을 보다 더 끌어들이 수 있는 나라만이 미래의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에 있어서 보다 더 큰 눈이 필요하다. 글로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정책 집행자 또는 대학 스스로 글로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이렇게 국제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교수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이장무 총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장이 보기에 서울대의 당면과제는 뭔지 딱 하나만 이야기해달라고 하자 ‘국제화’ 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까지 국제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학은 이제 세계에서 일하고 인정 받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어디서든 통화가 되는 모바일 폰(mobile phone)처럼, 지금의 인재들에게는 모바일 탠런트(talent)가 요구된다. 또 대학이 국가적 범위를 넘어선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세계 대학들과 공조해야 한다.”

그는 외국인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집행자 및 각 대학 교수들이 글로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을 때에만 글로벌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 3 학생들에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어떠한 학습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저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기 위해 주입식 공부에 시달리고 있을 뿐,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정확히 어떠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정보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준비가 안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대학을 다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정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식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

청소년 국제활동 및 글로벌인재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개발팀 | 김소희 박사

얼마 전 한 온라인 리크루팅 사이트에서 작년 매출액 상위 1백대 기업 중 자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중 ‘글로벌 역량’ (43.0%)과 ‘전문역량’ (39.2%)이 최상위 인재상 키워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역량이란 무엇일까? 글로벌 역량이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리더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등의 기본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 환경에 대해 면밀히 파악을 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의 초일류 국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창의성과 진취성, 기본기를 갖춘 인재가 요구될 것이다.

“이제는 지식경제가 아닌 창조경제가 도래했다” 세계 최고의 경영사상으로 알려진 게리 해멜(Gary Hamel)이 향후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며 한 말이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사회를 거쳐 진화해 온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조경영’이란 화두로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시 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국가는 ‘인재’ 즉 ‘사람’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창의력과 진취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축적된 경험이 경쟁의 원천이었지만 창조사회의 시대에서는 빠른 두뇌 회전과 독창적 사고가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영어 실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어실력은 있지만 글로벌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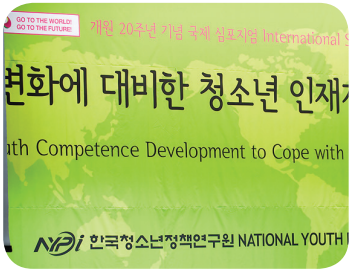
경에서 제대로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협상을 하고, 전략적 관계를 끌어낼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의 현장 참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해 외국어를 사용할 때 말의 설득력이나 협상에서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무대에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십이란 글로벌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갈 인재들을 이끌어어나가는 힘을 말한다. 이것은 학벌이나 어학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경험이 최고의 교사인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아 가길 바란다.

넷째, 글로벌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가진 인재로 개발해야 한다. 글로벌 문화란 문화적 다양성을 말한다. 다양성의 수용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글로벌 시민이 될 수 없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회 환경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유능한 인재는 국제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능력과 정보화 수준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주변 인프라를 잘 네트워킹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세계가 가깝고 빠르게 움직이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를 주도하는 글로벌 마인드와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는 국제회의, 선진국 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한민족 탐사, 녹색프로젝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UN, EU, OECD, UNE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청소년들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과정은 향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6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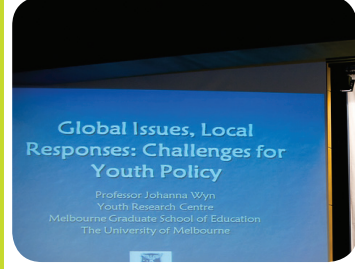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호주, 일본, 중국, 캐나다, 핀란드 등 5개국 청소년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환경변화에 대비한 각국의 인재개발전략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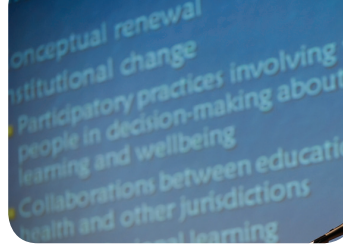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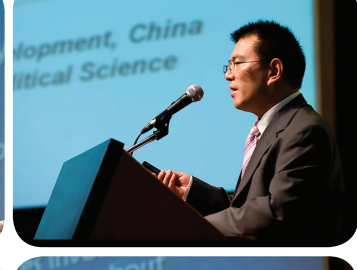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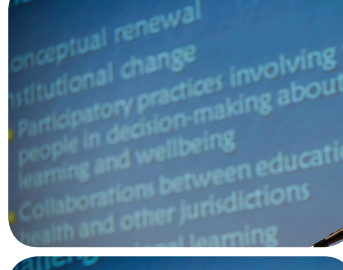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명숙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 청소년의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 노동시장의 변화, 교육정책의 방향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미래세대를 글로벌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은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이나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다양성 시대의 글로벌 인재'란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 안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모든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네스코 전성민 단장, 국제워크캠프기구 염진수 소장을 비롯한 국내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원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6월 25일(목) 저녁 7시부터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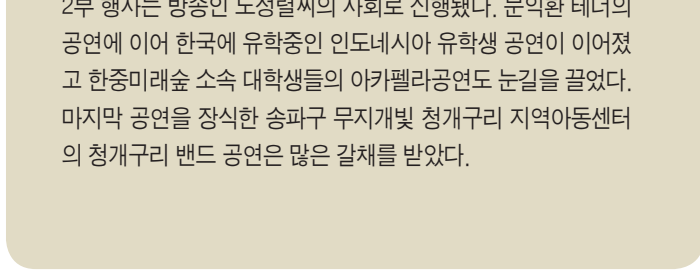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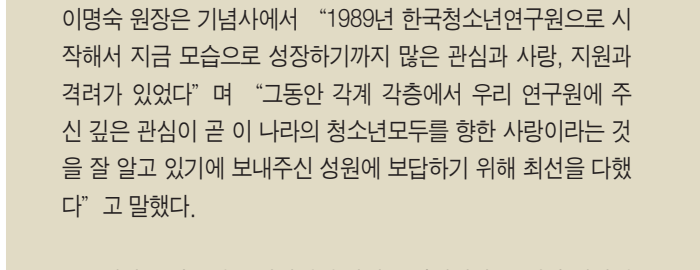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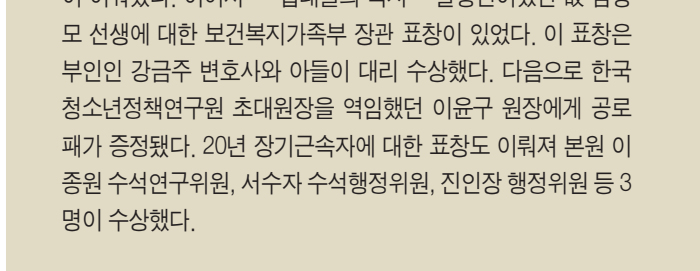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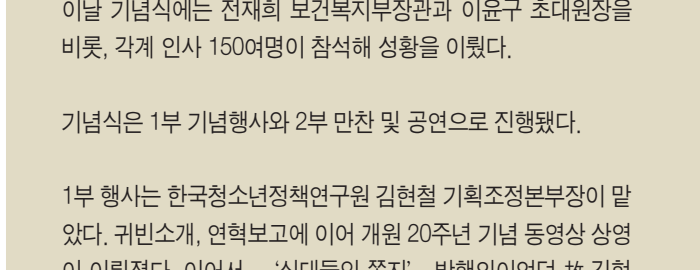
이날 기념식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윤구 초대원장을 비롯,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은 1부 기념행사와 2부 만찬 및 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다. 귀빈소개, 연혁보고에 이어 개원 2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이 이뤄졌다. 이어서 '십대들의 쪽지' 발행인이었던故 김형모 선생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이 있었다. 이 표창은 부인인 강금주 변호사와 아들이 대리 수상했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대원장을 역임했던 이윤구 원장에게 공로패가 증정됐다. 2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져 본원 이종원 수석연구위원, 서수자 수석행정위원, 진인장 행정위원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명숙 원장은 기념사에서 "1989년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과 격려가 있었다"며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우리 연구원에 주신 깊은 관심이 곧 이 나라의 청소년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부 행사는 방송인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문익환 테너의 공연에 이어 한국에 유학중인 인도네시아 유학생 공연이 이어졌고 한중미래술 소속 대학생들의 아카펠라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공연을 장식한 송파구 무지개빛 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의 청개구리 밴드 공연은 많은 갈채를 받았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정보화, 취업의 불확실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급속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확대가 예상되며, 노동시장 개방,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 개발전략’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마련을 위해 두 차례 국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세계를 무대로 꿈꾸고 싶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 해외 취업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요!
해외 인턴십을 가고 싶어요! / 해외봉사활동도 가고 싶어요!

✚ 청소년 17.6% 해외활동경험(어학연수, 봉사 등)

⚙️ 청소년 4명 중 3명 해외취업희망

⬇️ 해외취업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외국어

☞ 외국어 학습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

* 이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8년 수행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에 기반을 둔(문의처: 02-2188-8804, chyoon@nypi.re.kr)